

제427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7일(목)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인사청문요청안 2
2.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인사청문회 2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위원장님, 시작 전에 의사진행발언 짧게……

○위원장 이철규 꼭 하셔야겠습니까, 지금?

○김동아 위원 예.

○위원장 이철규 김동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동아 위원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 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전면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제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의 경우 특별한 쟁점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여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되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과 동료 야당 위원님들께 이 보도가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실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청문회를 열심히 진행하고 후보자가 열심히 해명하고 답변을 하더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당내에서 정했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저는 이철규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당리당락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 국가경제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고 이 청문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동아 위원님, 여기는 위원장 청문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다음, 더 나아가서 지금 잠시 전의 발언은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소속 동료 위원님 모두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청문이 시작도 안 됐는데 단순 언론 보도를 가지고 동료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지극히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사실이 아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여기서 그런 답변을 강요당할 자리가 아니니까 김동아 위원님, 청문회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그리고 도덕성·준법성·책임성 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확보, 전기·가스 등 민생과 직결되는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정책 마련 그리고 상호관세 부과 등 패권 경쟁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상전략수립 등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김정관 후보자가 적임자인지를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인사 검증의 취지에는 충실하되 상호 간의 존중을 통해 오늘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 방향의 제시와 소신과 철학이 담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 및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과 후보자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인사청문회

(11시17분)

○위원장 이철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인사청문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공직후보자 김정관

○**위원장 이철규**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실물경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산업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미 관세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수출을 견인하던 자유무역과 국제규범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높은 가격경쟁력과 빠른 기술 추격 등으로 우리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혁명을 지나 AI혁명과 에너지혁명의 트윈(twin) 혁명으로 인해 우리 산업 전반에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쟁의 판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은 격랑에 휩싸여 좌초되느냐, 새로운 질서를 이끄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서 이와 관련한 저의 소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 관세조치 등에 대해서는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겠습니다.

통상협정, 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활동 무대를 더욱 넓히겠습니다.

새로운 수출시장과 품목을 개척하고 금융, 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등 무역구조를 종합적으로 혁신하여 수출 1조 불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관련 부처, 지원기관, 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산업·무역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수출, 투자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의 수출과 투

자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AI와 에너지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에 AI를 대대적으로 접목·활용함으로써 산업생산성과 부가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고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확산시키겠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도전과제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경쟁력을 새롭게 높이는 성장 지향형 그린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관점에서 R&D·사업화 체계를 개편하고 AI반도체·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미래 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미래차 등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내 투자·기술을 확충하여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석화·철강 등 공급과잉 산업은 신속한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제품 전환을 통해 실기하지 않고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하여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매우 높은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고속도로 등 전력 인프라와 시스템을 혁신하여 전력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전력 불균형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생활 안정과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가격 체계를 마련하고 기후민감계층의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이 확보되도록 에너지 복지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올 여름철 전력수급 문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생태계를 복원하여 지역에도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5극 3특 초광역권 산업을 육성하여 다극적 지역균형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RE100 산단 조성,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부처 간의 협력으로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을 확실히 확충하여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그간 공직과 기업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과 통상, 에너지정책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장관후보자에 대한 검증 자리인 동시에 위원님들로부터 소중한 정책 제언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자근 위원 자료제출……

○위원장 이철규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구자근 위원 예.

○위원장 이철규 구자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경북 구미갑의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병역 관련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후보자가 1988년도에 폐결핵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병적기록표 증명 서류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저도 인사청문회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만 개인이 개인정보, 그러니까 개인 병역 관련 자료를 제출 거부하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 민주당 서영교 의원님도 PPT를 띄워서, 감사원장 할 때 자료를 제출하고 PPT로 띄워서까지 얘기했습니다. 방금 선서할 때 양심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후보자 병적기록표, —본인 겁니다—병적기록표하고 폐결핵 병사용 진단기록 그리고 1993년에 공무원 임용 당시의 신체검사서를 다음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다른 위원님들……

○박성민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철규 박성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성민 위원 엇그제 중기부장관후보자의 자료제출 불성실 때문에 사실은 인사청문회가 맹탕으로 끝이 나는 이런 불명예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오늘도 71개 국가기관에 2436건의 자료를 요구했고 또 우리 당 위원님들이 1273건을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상당 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정보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미제출한 자료 꼭 좀 내 주시고.

인사청문회를 왜 합니까? 자료를 거부하면 인사청문회가 정말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회의 중에라도 자료를 꼭 좀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제가 요구한 배우자가 보유 중인 제일은행 예금 및 역외펀드 관련 자산운용사명, 투자내역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제일은행 예금 중에 패스북 디포짓(passbook deposit)이라고 투자내역 그다음에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 중인 증권 두산에너지빌리티 관련해서 각각 매매내역·수익내역 이런 것도 좀 내 주시고.

후보자 지명 뒤 뒤늦게 부랴부랴 모두 처분했다는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에 꼭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다른 분들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김동아 위원님 무슨 발언입니까? 말씀하십시오.

○김동아 위원 신상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저의 의사진행발언은 어제 자 보도를 통해서 한 건데 불분명한 보도를 통해서 야당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좀 언짢으셨다면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산자위는 정정보다 그동안 우리 산업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양당 위원님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운영된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그 발언으로 인해서 혹시 마음이 좀 불편하셨다면 제가 유감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또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님, 잠시 전에 이 자료 요구 중에 제출하기 곤란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구자근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그 내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출을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확인해 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또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가족들의 불필요한, 청문과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지양돼야만 합니다. 그게 과거의 우리 폐습입니다. 그렇지만 후보자 본인의 검증을 위한 자료들은 제출하는 것이 인사청문 제도의 정착,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라 생각을 하니까 후보자께서는 오늘 오전 질의 끝난 후 또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구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뒤의 청문회 지원하는 청문단에서도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지난번 청문회 때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하다 보면 사실 후보자 한 사람을 놓고 질문하는 것에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을 것 없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수식어로 인해서 상호 간에 좀 불편한 발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발언 시간을 얻어서 질의하는 위원님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는 이견이 있으시더라도 좀 끼어들기 발언을 자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후에 그 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신상발언 또는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시면 충분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만치 질의를 하는 위원님의 질의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끼어들기 해 가지고 질의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후보자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기재부에 25년 재직했고 두산에서 마케팅 쪽에 7년 근무한 거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맞습니다.

○정동만 위원 산업부에 능통하다고 보기에 매우 부족합니다. 한미 관세협상과 또 대한민국 산업 문제들 쌓여 있는데 왜 꼭 산업부장관에 김정관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꼭 저인 건 아닌데요, 다만 제가 산업 현장에 있으면서 에너지산업 그리고 관련된 기계산업 그리고 수출 현장 경험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기재부에 있으면서도 산업부와 관련된 업무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탕이 돼서 후보자로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후보자님, 지금 두산이 성남시 부지 매입 특혜 논란과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때문에 재판 중입니다. 이 내용 잘 알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정동만 위원** 두산이 91년도 병원 부지 성남의 정자동 땅 매입했고 97년에 공사 중단됩니다. 그 뒤에 그 땅 방치하다가 업무용지 용도변경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이때까지는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터집니다. 두산건설이 당시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인 성남FC에 56억 원 광고 후원금을 내고 얼마 뒤 성남시가 정자동 병원 부지 3000평을 상업용지 용도변경을 해 줍니다.

이미 그 전에 두산이 성남시에 후원금 검토를 제시했고 그걸 성남시가 받고 쓸모없는 병원 부지가 20년 넘게 방치되다가 알짜배기 땅이 됩니다. 과거 두산은 그 땅을 제곱미터당 73만 원에 샀는데 성남시가 용도변경 특혜 후에 제곱미터당 땅이 1200만 원이 됩니다.

후보자님, 73만 원 땅이 용도변경 후에 1200만 원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언론을 통해서 성남FC 건은 받았는데 제가 재직하기 전에 있었던 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재직하기 전인데 두산과의 이런 불가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 임명을 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산건설 지분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가지고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랬던 것으로 압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두산에너지빌리티 부사장, 사장까지 재직했는데 이런 관계 당연히 아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

○**정동만 위원** 뒤에 파악 안 하셨습니까? 이번 인사가 보은 인사, 특혜 인사, 공직 나눠 먹기입니다, 이게. 네이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후보자님 보니까 산업부에 대한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또 공직을 그만두고 사기업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공직에 대한 사명감도 조금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가에 헌신하고 또 장관을 하겠다고,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두산 챙기기,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 후보직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그 전에 두산건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산업부장관후보자로서 어떤 기업의 현장 경험들이 우리 산업정책이나 통상, 에너지 분야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지요. 이때까지 그 파악 안 하셨습니까?

후보자님, 원전과 가장 밀접한 이 두산에너지빌리티에서 근무하다가 오셨는데 에너지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이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각 모든 에너지의 믹스가 현실적으로 조화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후보자 말씀에 의하면 에너지가 심장이다, 그렇지요? AI, 이차전지, 반도체 같이 지금 전력 소비가 큰 신산업이 발전하는 지금 재생에너지가 주 발전원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정동만 위원** 후보자는 꾸준히 원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고 또 11차 전기본에 의거해서 원전 2기와 또 SMR 1기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맞습니다.

○**정동만 위원**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맞습니다.

○**정동만 위원** 작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보니까, 아시지요? 원자력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비중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산업을 원전이 떠받들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원전 발전 뒤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인근 지역 주민들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정동만 위원** 특히 고리원전의 경우 30년간 원전 반경 8km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정동만 위원** 원전 인접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 곧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한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의견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리 같은 경우는 하나는 폐쇄가 되고 하나는 계속운전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상황도 알고 있어서 그런 분야는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11차 전기본 관련해서 저는 업계에 있을 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합의를 해서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에서는 에너지 분야가 정치에서 벗어나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매우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합의한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을 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후보자께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의해서 보충질의 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위원 장관후보자님, 일단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감사합니다.

○허종식 위원 장관으로 지명되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한미 협상이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허종식 위원 험난하지요? 보니까 상호관세 예고가 8월 1일이니까 14일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무엇을 주고 무엇을 지킬 것이냐 이것을 가장 고민하고 있지요?

트럼프 정부의 협상이 요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 기반인 농업·농산물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크게 보여요. 그렇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민감한 분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후보자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과 관세협상이 끝난 나라를 봤습니다. 영국, 상호관세 비율 10%, 영국산 자동차 25%에서 10%인데 대가로 농산물·소고기 시장 개방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허종식 위원 넘겨 보세요.

베트남, 상호관세율 46%에서 20%인데 미국에 시장을 완전 무관세로 개방한다, 농산물 29억 달러 상당을 구입한다. 역시 농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인도네시아, 3억 명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미국이 농산물 개방 압력을 가장 심하게 요구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역시 여기도 상호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내려 주는 대가로 미 농산물 45억 달러 정도를 구매한다, 대미 관세·비관세장벽을 면제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허종식 위원 이걸로 보면 미국이 어느 쪽에 관심 있느냐, 자동차도 있지만 첫째는 농산물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냐?

더 넘겨 보세요.

대미협상,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구가 기본적인 게 농산물, 쌀 수입쿼터를 확대해 달라, 다음에 소고기 30개월 이상,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 요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 5% 인상 또 주한미군 관련 안보 비용, 바이든 정부 때는 1조 5000억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걸 100억 달러로 올려 달라 이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 보면, 쌀 수입쿼터를 확대한다. 이것 우리 농민들이 쌀 수입을 처음에 했을 때 정말 저항이 심했습니다. 지금도 심하고 농림축산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쌀 수입을 반대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30개월 이상은 광우병의 위험이 있다 해서 전 국민이 반대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는 ‘알래스카

LNG는 경제성이 없다' 이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은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경제성이 없다라는 데 방점이 있다고 보고요.

국방비 5%,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2.3% 정도 된다는데 2배 이상이고. 주한미군 주둔 관련해서 1조 5000억을 100억 달러, 10조 4000억 정도로 올려 달라는 거잖아요?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여기예다가 정부의 합의도 쉽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대하잖아요, 쌀. 소고기 반대하고요. 산업부야 내주고 받으면 좋겠지요. 이렇게 됐을 때 정부 부처 내 합의도 쉽지 않아서 이게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 부처 간 조정이 쉽지 않지요, 역시나.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나 조정이 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자신 있습니다', 농산물을 안 받고 할 것 인지 아니면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지금 현재 직접적 참여는 안 하고 있어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참으로 엄중한 시기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할 때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축산인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이라는 게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 농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팀도 지금 현재 이를 유념해서 관계 부처, 주무 부처들과 충분히 의견을 하고 있고요.

○허종식 위원 그 부분을 협상팀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합당한 설명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해시키고 보상 방안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큰 틀에서 또 세세한 부분까지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명심하고 유념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에너지고속도로 적기 추진이 가능하냐. 대통령 공약은 30년까지인데 제가 한전에다가 이것을 질의해 봤습니다.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2031년 12월까지…… 가능할까요? 이것 하려면 전력수급기본계획 넣어야지요 또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넣어야 돼, 이런 절차가 있는 데다가 예산이 무지무지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풍력 같은 대체 에너지를 생산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허종식 위원 왜냐하면 마련한들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후보자님 설명하시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서해안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하게 예산이나 재정의 이슈만으로 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숙제라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전력망 특별법도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취임을 하게 되면 여야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지자

체, 관련되는 기관들하고 해서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이력을 보니까 정말로 다양한 공공에서와 민간에서의 경험이 있던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정책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특히나 산자위에 와서 느끼는 건데 한동안 십수 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이 굉장히 희미한 시기를 저희가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시 산업정책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혹시 후보자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해외 마케팅을 하다 보면 국내·해외 기업인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주식회사 중국, 미국은 주식회사 미국, 기업과 정부와 다 함께 뛰는데 저희들끼리 ‘왜 우리는 우리 혼자 뛰냐’ 이런 자조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취임을 하게 된다면 정말 같이 떨 수 있는 산업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에너지안보, 경제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장철민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통상 문제에서도 사실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혹시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미션 이코노미’ 이런 책을 참고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국가가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가 어떤 공공적인 가치를 열기 위해서 선도적인 투자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감대를 얻고 있고, 저희도 사실 대선 과정에서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보면 K-이니셔티브도 그렇고 우리가 다시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일종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종류의 국가의 산업정책적 역할에 대한 게 점점 강화되고 있고 실제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그냥 단순히 국가 산업정책이 다시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정책의 틀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5극 3특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균형발전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지만 제가 산업부나 아니면 다른 광역단체들의 산업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지역산업정책을요—보면 사실상 머릿속에 잡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역산업정책이 어떻게 기획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그 자원들이 어떻게 모여지고 그게 어떻게 집행되는가라고 하면 초광역 단위의 지역산업정책의 틀이라는 건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5극 3특이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뭔가 진짜로 실체화가 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그래서 균형발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틀부터 잡아야 되거든요.

혹시 후보자님 아이디어 갖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보고를 받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이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기재부에 있을 때 지역특구법안을 담당했던 적이 있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지방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을 했는데 왜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일종의 수도권 집중이 계속 더 심화되는 걸까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은 있고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지역경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도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판을 짜야겠다, 그동안에 해 왔던 정책을 그전처럼 해 가지고는 수도권 집중 문제는 여전히 계속될 것 같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마침 5극 3특이나 지역산업정책, 전체적인 정부의 역할이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한번 마련도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해서 한번 짜 보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장관이 되실 것 같으니까. 장관이 되시면 지역산업정책을 누가 기획하고 그 산업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자원들을 어떻게 모아 내고 그것들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그 틀을 좀 명확하게 일단 하나 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중앙 부처가 5극 3특이 됐든 어떤 초광역 단위가 됐든 부산은 이렇게 하고 대전은 이렇게 하고 대구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정해 주는 시절은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초광역 단위, 지역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고 틀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 광역단체는 그만큼의 역량이나 그만큼의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충청권투자공사 같은 법안도 내고 하면서 그 틀을,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 보자,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좀 찾아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제가 냈던 이 법안을 꼭 하자라는 걸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지역산업정책의 틀에 대해서 구상해 주십사 하는 것 하나랑 또 다른 하나는 기존 정책에 대해서도 방금 후보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광주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한테 도심융합특구제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거의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까지 다 살아남은 균형발전정책인데 산업정책과의 결합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아직도 균형발전정책은 국토정책인 것처럼 그냥 공간에 대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정책인 것처럼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산업정책하고 결합돼야 의미가 생기는 거지요.

결국은 균형발전, 지역을 살린다고 하는 것들도 거기에서 어떠한 경제생태계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공공과 민간과 또 지역 원래에서 만들어진 어떤 산업이 어떤 식으로 융합되는지가 결과물이 나와야만 사실 의미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장철민 위원** 그래서 사실 지역 칸막이를 조금 없애야 됩니다. 이걸 국토부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산업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기부가 같이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기관들, 민관이 함께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도권을,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저희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많다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시 산자부장관이 되시면 정치인 장관들 틈바구니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산업정책 그리고 전체 국가산업정책의 틀, 특히나 도심융합특구제도 같은 기존 정책에서 산자부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지금 한미 관세협상 마감 시한이 한 2주 정도 남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지금 현재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엄중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우리 정부가 특히 협상 지렛대로 삼아야 할 부분이 방산과 결합된 조선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조선산업을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동의합니다.

○서일준 위원 지금 미 해군 함정 숫자하고 중국 함정 숫자가 2020년경에 역전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2030년이 되면 미국은 지금 수준인데, 지금은 한 300척 정도 되거든요. 중국은 한 430척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군함 숫자는 미 해군보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본토에 조선소가 4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수함이 한 3분의 1 정도가 수리 대기 중이고 MRO 예정 중인 것만 해도 한 40% 정도 되는데 지금 7함대 같은 경우에 미국 본토로 옮기는 데만 해도 한 보름 이상 걸린다, 그래서 승조원들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조선소가 MRO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조선업이 가지고 있는 제조 역량이 미국에는 없는 거여서 미국하고 우리가 같이 협

업을 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 6월 20일 날 일본에서 1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조 원 정도 됩니다. 1조 엔 규모의 투자기금을 조성해서 그냥 조선소가 아니고 국립조선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국립조선소를 지어서 민간에 위탁하겠다. 일본에서 왜 이렇게 국립조선소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일본도 마찬가지로 조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식을 하고 있고 일본과 우리는 전통적으로 조선 분야에서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는 분야입니다.

○서일준 위원 원래 경쟁 관계가 아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렇지요.

○서일준 위원 일본이 훨씬 기술력이 우위에 있었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전수받은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맞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력 분야는 일본이 더 낫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건조 물량이라든지 수주 규모가 우리가 많다는 건데 이게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본이 국립조선소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MRO나 미국 함정의 신규 건조에 들어가겠다 이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지금 현재 MRO 시장 규모 혹시 아십니까, 미국 군함 MRO 시장 규모, 1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 숫자까지는 제가……

○서일준 위원 1년에 한 1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신규 함정 건조 1년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아십니까? 신규 함정 건조하는 데만 55조입니다. 아, 44조. 그래서 미 해군의 MRO뿐만 아니라 신규 함정 건조하는 데 1년에 55조입니다. 향후 30년간 한 1500조에서 2000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장이 있으니까 지금 일본에서 국립조선소를 지어서 미 함정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거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동안 일본하고 미 해군이 협력했던 경험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7함대가 6·25 전쟁 이후에 도쿄만 인근의 해군기지에서 그동안 계속 MRO를 해왔습니다. 현재까지도 꾸준히 민간 조선소에서 MRO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 무기체계도 우리 해군보다 미 해군하고 더 유사합니다.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미일 정상회담입니다. 그때는 물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인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일본 민간 조선소의 미 해군함 수리 협력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작년하고 금년에 미 해군함정 중에—전투함이 아닙니다. 보급함입니다—비전투함, 아직까지 신뢰가 안 쌓였기 때문에 전투함은 우리가 맡지를 못하고 비전투함 3척밖에 MRO를 하지 않은 완전 걸음마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동안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유리하게 하고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기본적으로는 일단 협상의 레버리지로서 미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잘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첫 단추를 하고요.

○**서일준 위원** 아니, MRO 그동안 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조선소보다는 일본 조선소가 훨씬 우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소가 일본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하면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제가 그걸 여쭙보고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조선소가 가지고 있는기자재 이슈 그리고 중소 조선사들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화 이슈라든지 다양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첫째는 신뢰이고 둘째는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인데 과연 정부에서 조선소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그간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듣기는 제도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든지 선박 수리 과정에서의 우수성을 설명한다든지……

○**서일준 위원** 거의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세계 산업이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지요. 김정관 후보자님께서서는 정부와 기업에서 일하셨고 또 정부 안에서도 기재부, 한은, 국제부흥개발은행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셔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 지명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RE100 산단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RE100 산단의 경우는 에너지 대전환에 맞고요 또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정진욱 위원** 또 다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RE100 산단 조성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곧바로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첫 브리핑 주제로 RE100 산단 브리핑을 하셨는데 김 후보자님은 RE100 산단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신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RE100 산단은 일단 RE100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는 현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송전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좋습니다.

입지를 서남권, 특히 전남 서남지역이나 또는 광주의 대규모 산단인 빛그린산단 이런 지역이 굉장히 적지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공항 이전이 예정돼 있는데 만약에 스마트신도시가 그 지역에 지어진다면 그것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적

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정진욱 위원 특별법도 제정해야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 텐데 저도 RE100 산단을 염두에 두고 특별법을 준비해 오다가 정부 발표 듣고 바로 산자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올 하반기 안에는 특별법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정진욱 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정진욱 위원 RE100 산단이 성공하려면 기계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듯이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도매요금 차등화 뒤에 소매요금 설계를 따로 하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동시에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이 바뀐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지금 현재는 동시에 할지 순차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설계용역 결과를 보고 지금부터 할 텐데 위원님께서……

○정진욱 위원 용역 결과가 도매는 올 하반기 그다음에 소매는 내년 상반기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따로 될 수도 있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동시에 했으면 좋겠고요.

또 도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소매의 경우는 훨씬 더 정교하게 권역을 나눠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정진욱 위원 한전 부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한전은 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부담을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은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부채가 207조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정진욱 위원 연결 부채이기는 합시다라는 심각한 재무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데이터센터 같은 어떤 전력 다소비 산업이 부흥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또 한전은 송전망 투자를 15년간에 걸쳐서 약 73조, 아마 그보다도 더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정진욱 위원 이런 경우에는 전기요금만 가지고는 한전의 수익성 또는 재무구조 개선이 안 될 것 같은데 한전 자체에서는 지금 새로운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시다라는 그런 어떤 한전의 적극적인 움직임, 그동안에 한전이 무겁게 경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응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도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수익 창출이라는 측면

에서 또 한전분들하고도 업계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새로운 수익원 만드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도 줄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정진욱 위원 석유화학산업이 위기라는 데는 인식 같이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정진욱 위원 작년 12월에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방안 내놓으시고 그 뒤에 후속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는 계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취임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석유화학산업 정말 위기인데요. 사업재편이 반드시 필요한데 세제나 금융 또 경쟁법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재편 방안을 추진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게 여러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공정위의 인가나 이런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법을 바꿔서 공정위의 인가를 넘어서는 방법이 없나 하는 고민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활력법을 좀 바꿔서,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이지요. 산업부장관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할 때 공정위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그 내용을 사업재편 계획에 포함시키면 별도의 기업결합 심사나 공동행위 인가라는 어떤 공정위 과정을 거친 것으로 간주해서 공정위 심사 기능은 그대로 두되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석유화학은 제일 중요한 게 실기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기활법을 개정하도록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공정위 본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위기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장관께서 나서셔서 공정위 설득하고 기활법을 활용해서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좀 빨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알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후보자님, 내정 축하드리고요.

경력 보니까 92년도에 행정고시 36회 합격하시고 처음에는 재무부 받았다가 기재부에서 26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18년도에 DLI, DLI가 이게 두산 산하기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두산 산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그리로 옮겼다가, 부사장으로 옮기셨다가 19년 3월 달에 두산경영연구원장으로 가셨고 두산에너지빌리티 마케팅부문장 사장까지 겸직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공직에 계시다가 이렇게 기업체로 옮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기업체로 옮기게 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기재부의 종합정책과라고, 정책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하면서 느꼈던 게, 수많은 정책을 만들고 하면서 느꼈던 게 왜 정책이 실행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저출산·고령화 이슈를 그렇게 많은 대책들이 나왔는데 왜 착근이 되지 않을까, 왜 계속 그런 문제는 있을까 하는…… 공무원만 계속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사는 사회와 공무원이 아닌 시장하고가 딱 괴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종배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려고 가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러면서 한번 알고 싶고 도전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글썄, 그건 알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텐데 꼭 현장에 뛰어들어야 알 수 있는지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고요. 그런 생각은 많은 공직자들이 했을 것 아니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들 했고.

그런데 왜 하필 두산이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당시 두산에서 저한테 제안이 와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두산에서 제안이 와서 그렇게 하셨다.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병역의 결과가 5급 전시근로역이던데 질병으로 인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공직 수행을 하거나 또는 장관직 수행하면 굉장히 바쁠 텐데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지 또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계속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무에 지장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경영연구원 한 3년 하셨지요? 두산경영연구원 3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끝나고 나서 상여금을 2억 8000 정도 받으셨던데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끝나고 나서, 경영연구원에서는 끝났잖아요. 퇴직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렇게 받는 게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끝나고 받은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장기 상여금 시스템이 3년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렇게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성과급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룹 내에 다른 계열사로 이동을 할 때도 그걸 받는 걸로 지금 돼 있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두산건설하고 성남시의 관계는 잘 모르셨다 그러시던데, 언제 알게 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언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정확한 시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한참 나올 때 그때쯤 알게 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장관 내정 통지 받으면 대개 즉시 사표를 내는데 사표를 안 내시고 한참 뒤에 내셨어요. 7월 4일 날인가 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왜 이렇게 늦게 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막상 되고 나니까 청문회 준비하면서 시기를 놓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아,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때 그 기간 동안에 받은 건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에 기부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바로 사표 내고,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그럴 때는 벌써 준공직자로서 다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로인데 거기에서 받는 것도 걱정치 않고, 좀 걱정치 않은 일이 있었다. 그것 반성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언론에서 보니까 장관이 되면 6개월 임기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못 봤습니다.

○이종배 위원 산업부가 조직개편이 될 거기 때문에 조직개편 하면 그만두실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만든다, 이 신설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지금 현재 조직개편 관련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고요.

제 개인적인 소신이나 이런 측면은 아니지만 저는 산업과 에너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종배 위원 불가분의 관계다 이런 말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산업과 기후와 에너지 이런 것의 관계를 볼 때는 에너지를 기후와 관련시켜서 에너지가 요즘 친환경 에너지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그래서 기후보다는 산업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업과 에너지가 더 밀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아마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중요한 게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운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마치 이게 ‘기후에너지’ 해 가지고 환경부로 들어가느니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던데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전재수 위원님 여기 계시더니, 전재수 내정자께서는 ‘조선해양플랜트가 해수부로 가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조선산업은 단순히 물류·해운만 연관이 되는 게 아니라 기계산업 그리고 소부장 그리고 디지털, 다양한 산업들이 얹혀 있는 복합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복합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산업부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조선과 해운을 합쳐서 국토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일본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 게 결국은 산업 간의 연계성을 놓치는 바람에 했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다만 해수부와는 긴밀한 연계성은 계속 살려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오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김정관 후보님, 장관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공직의 경험 또 산업현장에서의 경험 잘 활용하셔서 산자부장관이 되시면 정말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먼저 기대를 드립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대의 관심은 트럼프와 관련된 통상·관세 정책 아니겠습니까? 장관 내정되시고 인사청문회도 준비하지만 정부 정책들 챙겨 보시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정부 내에 어떤 대책기구가 있던가요, 범정부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지금 현재는 통상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하고 이렇게는 있는데 아주 범정부적인 대책기구가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 이슈와의 어떤 거버넌스가 새롭게 좀 확실하게 갖춰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뭔가 이게 국민들한테, 지금 이제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통상 이슈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그런 확고한 대책기구들이 좀 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산자부 내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질문을 드렸고요.

그중에서도 이런 대책기구든 산자부든 뭐 이렇게 하면 업계, 특히 업계의 의견을 제일 많이 듣지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관련 공무원들이 의견을 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또 최고의 전문가이기도 해서, 그런데 대개 이럴 때 보면 어떤 이슈든지 간에 노동계가 빠져요. 노동계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앞으로 산자부장관이 되시면 노동계, 물론 노동부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노동계의 이런 통상에 관한 이슈에서 여러 가지, 왜인가 하면 현장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내 직장이 없어질까 하는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수렴할 수 있을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자동차 부문만 떼 놓고 보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K-AUTO’ 이렇게 해서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K-AUTO 전략을 보면 나름 굉장히 열심히 분야별로 다 준비를 잘하셨고 정부가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어찌 보면 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비슷한 대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지금 나와 있는 K-AUTO 전략에 플러스해서 알파 되는 정책을 준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되면 그 부분을 다시 새롭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저는 좀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들을 더 마련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자동차산업이 갖는 비중이 어느 산업이든 중요하지 않은 산업이 없지만 조선보다 한 3배 정도 크지 않습니까? 고용이라든지 매출 이런 부분이 수출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각별하게 더 좀 챙겨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도 전기차가 요즘 약간은 침체기에 있습니다마는 중국 저가 전기차가 우리 국내에 굉장히 상륙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허성무 위원** 잘 아시다시피 BYD라든지 창안자동차는 아예 완제품이 들어오는 거고 그런 경우에 국내에서 안 팔리면 그만인데 지리자동차는 르노코리아하고 협력하고 그다음에 체리자동차는 KG모빌리티하고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무, 전략적 투자를 서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전기차 생산할 때 그 부품 조달을 중국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되면, 언제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부품 국산화를 최우선적으로 해 왔던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산업정책하고 이게 충돌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충돌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후보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어려운 숙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자동차산업도 존립하기 어려운 거라는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현재 업체들 간의 어떤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해외자본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거지요, 사실은. 그렇지만 해외자본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작용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한 경계심과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들어 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허성무 위원** 일곱 가지 국가전략산업에 대해서 주요 혜택을 이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산업이 없지만 미래형 이동수단 이걸 제 지역구에 굉장히 중요 하거든요. 자동차, 기아·현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중견 3사와 관련된 모든 납품 회사들이 있고 실제 공장도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 공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서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킬 건가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이걸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관련 업계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장관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한번 질문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일단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우리 국내 제조 기반을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틀이라고 보고 관련해서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랑도 잘 협의해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래산업 관련된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핵심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분야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K-AUTO와는 별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후보자님 기재부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세액공제 30%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역할을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대책을 세워서서 실행력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통상·관세 이런 문제로 지금 수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수출이 어려워지면 내수라도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명을 거명해서, 좀 어렵습니다라는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에 비해서 중견 3사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GM코리아나 KG모빌리티는 제 지역구에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제 지역구 옆에 또 르노코리아도 있습니다. 중견 3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중견 3사들의 내수 확대라든지 생존을 위한 그런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현재도 기존의 내수 진작책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견 3사 같은 경우는 친환경 투자를 촉진한다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든지 방안들을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동차산업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지요, 고용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허성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구미갑의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명 축하드립니다.

후보자의 노부모 부당 인적공제 의혹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고 입장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연말정산 하실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해서 인적공제 받으셨고 혜택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재산신고할 때는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해서 고지 거부를 하셨어요. 내용을 보면 부모님께서 월 한 250만 원 정도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니까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 편법을 쓰시고 또 부당 인적공제 그동안 받으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후보자라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고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재부 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인사청문회 요청 사유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세제개편, 그렇지요? 그런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실질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어떻습니까, 입장 표명 좀 해 주시고 국민들 보시는데 사과 한번 해 주시고 털고 가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정말 사전에 면밀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최근 5년 동안은 이번에 알게 돼서 납부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전의 것도 찾아와서 어떤 식으로든지 다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자근 위원 제가 후보자의 양심을 물은 겁니다.

그리고 앞의 동료 위원님들 많은 말씀 있었습니다만 후보자가 공직 그만두시고 두산에 계속 근무하시고, 19년도부터,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두산이 성남FC 뇌물공여 기업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실질적으로 사법적 리스크의 운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지명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아니면 이해충돌 소지 요소가 많다는 지적들이 지금 밖에서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물론 그룹의 일이고 저는 계열사 중에 한 곳의 사장이라서 크게 건설사 관련해서 잘 모른다,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후보자가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 이 직전까지 사장 아니셨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22년 성남FC 뇌물사건 논란 당시에 보도된 내용들, 지분관계를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실질적으로 두산건설의 지분을 두산에너지빌리티가 46%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를 포함해서 전체 계열사 지분을, 사모펀드의 지분을 확인해 보면 실질적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실질적 지배주가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두산의 두산건설 전 회장 이재경 회장과 대통령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사항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그리고 그 건설사의 실질적으로 최대 지배주주인 두산에너지빌리티 전 사장이 지금 산업부장관으로 선임이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을 국민들께서도, 본인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부분을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

서 정말 모른다는 그것을 실제적 진실을 믿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분당의 두산타워입니다. 저게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당의 아이콘입니다, 분당의 아이콘. 원래 병원 부지였습니다. 두산의료재단이 91년도에 73억 정도에 샀는데 실질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건설을 중단했고 이것을 두산건설이 126억 원에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병원 부지 말고는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대업 시장 시절이지요, 그래서 한 7년 동안 두산에서 계속 2003년, 2005년, 2019년 계속 한 다섯 차례 접촉을 해서 용도변경과 용도 상향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하게 되는데 이 이유가 이렇게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을 해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특정 기업에 엄청난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있고 그리고 원래의 목적인 병원 부지를 설립해서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병원 의료 혜택이, 그런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2010년도 7월부터 상황이 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두산건설이 적극 로비에 나서게 됩니다.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의 중앙대 인맥을 이용하게 되는데 안민석 의원이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을 통해서 만남이 성사되고 2013년 8월에 두산은 조찬 자리에서 용도변경 민원 요청을 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긍정적인 검토를 정진상에게 논의하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진상과 두산과의 기나긴 밀고 당기고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10% 부지 기부채납과 성남FC 50억 후원을 약속하고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의 대가를 받게 된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73억, 126억에 산 돈이…… 6200억에 팔았습니다. 엄청난 거지요. 전형적인 정치권력과 기업 간의 유착 의혹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 성남시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 혜택 이런 부분들이 깡그리 온데간데없이 뭉개지게 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중지되었지만 같은 내용으로 두산건설 이재명 전 회장 등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언론에서 그 당시 다 나왔고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의 공소장에 다 나왔고 이재명 후보 국회에서 할 때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이 사건과 무관하고 설령 몰랐다 해도 앞으로 산업부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관세협상이나 우리 기업들의 활력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용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난국이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부터 해서 상법 개정부터 해서 관세협상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우려와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털고 산업의 또 산업부 수장으로 서 매진해 주는 그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면서 장관후보자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아니, 답변을 듣고 하세요.

답변하세요,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일단 기업들의 다양한 경영 환경 애로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우려들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성남FC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인지하거나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자근 위원 아니, 지분을, 대표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바지 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이 위원 구자근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질의 끝나셨나요, 발언?

○구자근 위원 예.

○위원장 이철규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여기……

○김원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마무리하고 오후에 하시지요.

○박상웅 위원 오후에 하시요, 오후에.

○김원이 위원 아니, 지금 하시요.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김한규 위원 대표로 한 사람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간단히, 한 사람만.

○박성민 위원 개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김원이 위원 아니, 위원 발언 갖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김 위원 발언 시간에 하세요, 김 위원 발언 시간에.

○박상웅 위원 그래 그러면 되지.

○김원이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일일이 그렇게 다 하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라니까.

○위원장 이철규 잠깐, 잠깐.

○김원이 위원 제가 구자근 위원님 발언하실 때는 아무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잠깐만. 두 분 다 맞아, 두 분 다.

○박성민 위원 아니, 개인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의사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원이 위원 아니, 구자근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그동안 위원장님이……

○박성민 위원 개인 발언 시간에 발언하라고, 본인 발언 시간에.

○김원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간사님, 위원장님이 위원의 질의 시간에는 뭐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예, 드릴게. 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박성민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김원이 위원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끝난 다음에.

○박성민 위원 그건 당연한 거지. 다른 사람 발언하는데 어떻게 왜 이야기하노. 개인 발언 시간에 발언하라고.

○박상웅 위원 야당 위원 발언권을 그렇게 억압을 하면……

○김원이 위원 이건 발언하게 해 주셔야지요.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성민 간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다고요.

○권향엽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다고 하는데 왜 막아요?

○박성민 위원 왜 다른 동료 위원 발언에 이의를 제기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빌리노.

○위원장 이철규 지금 전부 다…… 기다리라니까요, 드릴게.

○김원이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만 발언하세요.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한다니까요,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이철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자, 조용히 하시라니까, 조용히.

조용히 하시고……

○구자근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당히 합시다.

○김원이 위원 아니, 진짜로 구자근 위원님 발언하는 동안은 제가 한마디도 안 끼어들었습니다.

○박상웅 위원 앞으로 야당 위원이 발언을 어떻게 하겠어요. 일일이 의사진행발언으로 평가하고 다 질책을 하고 가로막으면……

○위원장 이철규 자, 조금만……

손 내려놓으세요.

○김원이 위원 2분만 주십시오, 2분.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규 글썽, 계세요, 잠깐만.

김원이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곧바로 하게 되면 감정만 뽐하니까 시간을, 좀 식히고 난 다음에 오후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원이 위원 아니, 지금 주세요. 지금 마무리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이철규 앞으로……

아니, 잠깐만 있어요.

동료 위원의 발언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겠다는 거니까…… 간사님.

○김원이 위원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 주장을 할 겁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본인 발언 시간에 해야지. 본인 주장은 본인 발언 시간에 해야지. 왜 의사진행발언을 하노.

○위원장 이철규 오늘 잘 진행합시다, 빨리.

○박성민 위원 본인 발언은 본인 발언 시간에 해야지.

○김원이 위원 아니지요.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김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집중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박상웅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오후에 속개합시다.

○위원장 이철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김원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원이 위원 1분만 할게요.

오늘 인사청문회는 김정관 산업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김정관 후보의 자질이나 도덕성을 검증하는 질문이야 백번 타당한 일이지만 김정관 후보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좀 삼가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FC 문제 같은 경우에는 김정관 후보의 두산 재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기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본인이 근무하지도 않았던 시절에 벌어진 일들을 김정관 후보에게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허종식 위원님이 다 밝힌 대로 지역 축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지역기업의 스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관행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라든가 경남, 성남 다 지역 시민구단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기업의 도움 없이 운영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김정관 후보의 인사청문회인 만큼 김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내용의 도덕성 검증이나 자질 검증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위원장님께서 다른 여야 위원님들께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예, 시작 전에 공지도 드렸고요. 또 위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쟁점 확인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걸로 생각하시고,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지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동아 위원님 잠시 계시고.

나경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나경원 위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아까 가족부양 공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 5년 것만 나와 있는데요. 과거 기재부 공무원 시절부터 해서 몇 년 치까지 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치까지는 보관이 당연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치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자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본인이 아까 ‘면밀히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부양 가족으로 등재를 해 냈는지 살펴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규 자료 제출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김동아 위원님, 질의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아 위원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민주당에서 경남 지역 산업현장 시찰 갔을 때 열성적으로 산업과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시던 모습이 역력한데 이렇게 또 뵈게 돼서 참 반가운 마음입니다.

오전 질의에 답변하신 것 보니까 산업부와 산업 현실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고 현장 경험까지 두루 갖추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업무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공직에 계시면서 대한민국 산업과 산업 현실에 대해서 경험하시거나 역활하신 성과가 있으실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 기억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2013년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걸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출산·고령화라든지 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주무 과장이었습니다. 그게 제 기억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김동아 위원 그런 역활을 하시면서 산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다 같이 하셨던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동아 위원 또 대개 공직에 있다가 민간에 가지게 되면 인사관리나 아니면 대관 업무, 경영컨설팅 위주 이런 업무만 하시던데 두산경영연구원에 있다가 일선 산업현장인 두산에너지빌리티로 이직을 하셨더라고요. 특별하게 이렇게 이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가고 싶다는 희망을 했었고요. 두산에너지빌리티에 있으면서는 전반적인 글로벌 경영환경이라든지 신산업 부분 또 에너지 분야에 대한 트렌드를 했는데 실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한번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또 후보자님께서서는 공직과 민간 경험을 두루 하시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인상이 좀 달

라지셨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민간에서 볼 때 공직사회는 어땠고 그 경험을 우리 산업부에서 어떻게 실현시킬지 비전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산업부는 저한테 수출이나 투자 부분의 어떤 파트너, 동료였었는데 제가 민간에 가 보니까 정부는 너무 높아 보였습니다. 정부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하고의 간극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아서 저도 참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산업부장관으로 된다면 현장과 공직, 특히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부와 그 간극을 좁히고 현장 중심으로 가는 데 좀 더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김동아 위원** 저도 적극 동의하고, 이제는 관 중심에서도 안 되고 민간 중심으로서도 안 되고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해상풍력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상풍력산업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에너지안보 강화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해상풍력 터빈과 발전설비 제조 분야의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을 역임하시면서 해상풍력산업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쌓아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해상풍력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은 325.7MW로 제11차 전기본에서 밝힌 2030년 목표 14.3GW 대비 2.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이런 지금 2030년 해상풍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해외를 다닐 때는 원전 세일즈를 했지만 국내에 있을 때는 해상풍력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서남해안 그리고 울산, 주요 프로젝트 하는 데는 대부분 다 다니면서 느꼈던 건 규제 그리고 주민들의 수용성 이슈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시야에서 보면 해상풍력이 국내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으로 안타까웠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된다면 그런 현장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뚫어 보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가 되고 나서 첫 미팅을 해상풍력 전문가들과 가지면서 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특별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김동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약 90%가 민간사업자 또는 해외 사업자에게 할당되어 있고 공공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덴마크 오스테드, 노르웨이 에퀴노르 등 해외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고 지금 국부 유출과 에너지 주권이 위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덴마크 에너지 공기업 오스테드는 해상풍력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하며 자국의 에너지 주권 확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 사례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해상풍력 전담 공기업을 설립해서 분산되어 있는 역량을 한곳으

로 집중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해상풍력 하면서 깜짝 놀랐던 건 우리 국내 공기업들조차도 국산보다는 오히려 외산을 더 선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기준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피가 거꾸로 솟친다는 그런 서운함이 들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기업들이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산을 더 선호하고 하는 모습들에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풍력 관련해서 국내 공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말씀해 주신 전남개발공사를 포함해서 하는 부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결국은 경쟁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 해상풍력이 세계에 비해서는 걸음마 단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R&D를 투자하고 어떻게 거기 기업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힘을 실어 주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2월 19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2차관님께 해상풍력 관련 공공성 강화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청을 드렸고 보고드리겠다는 답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지금 5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동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갑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김정관 후보자님,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우리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OECD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200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전망치고 또 대미 관세 같은 통상 압력도 세기 때문에 대외 여건도 어렵고 계속 기후위기 심화되면서 에너지전환해야 된다 수년째 얘기했는데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 싶고요.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제 질의를 드릴 부분은 앞서 해상풍력과도 유사한 부분인데요.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시대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겠지요. 관련 산업도 세계적으로 아주 눈부시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태양광 수요가 695GW, 올해는 또 작년 대비 16% 성장할 것이라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에너지기업에서 일하셨으니까 이런 시장동향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하는 산업인데 사실 국내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력 같은

경우는 터빈 경쟁력도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가치사슬별로 다 기업이 존재했었는데 이 가치사슬이 무너지고 지금 남아 있는 모듈 생산 기업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오히려 잘나가고 있고 국내에서는 공장가동률이 매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지혜 위원 작년에 공장가동률이 33%까지 떨어졌어요. 공장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님, 이런 현상이 그대로 방치돼서야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혜 위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일단 저도 정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어느 회사는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빨리 조속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있어야 기업들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품을 제조도 하고 경쟁력도 키운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관련 인프라들이 현재는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라 그런 인프라 확충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이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은 일정 부분은 국내 기업들이 반드시 생산과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 부분 후보자님과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국내시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급 목표, 미리 고지하고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태양광 같은 경우에 신규 보급량이 지난 3년간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가 유의해서 지속적인 보급정책 제대로 가져가야 된다 강조드리고 싶고.

또 후보자님께서 언급하지는 않으셨는데 이런 산업들이 직면한 좀 불필요한 규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찾아서 잘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격거리 규제입니다.

지금 태양광이 기초자치단체별로 300m에서 1km까지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3m, 1.5m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300m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격거리 규제 때문에 설치 가능 면적이 62.7%까지, 설치 가능 면적이 줄어서 실제로 가능한 면적의 60% 정도밖에 못 하고 있다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는 반드시 해소해야 되고 산업부가 이 부분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산업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같은 것 계획을 하실 때 재생에너지 공

급 목표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으셔야 한다 당부드리고 싶고, 현재 산업부가 2030년까지 6GW 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확보된 재생에너지 기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목표를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업 육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중국산 패널이 우리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만큼 중국산 패널이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지혜 위원 중국 정부가 2023년 한 해 동안 태양광 제조업체에 직접 현금 지원, 세금 감면, 무상 임대, 저리 대출, 전기료 지원 이런 것을 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한 지원 금액 규모가 180조에 이릅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탄소중립 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내의 관련 산업 육성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고 발의도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척이 별로 없었습니다. 후보자님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지혜 위원 이러한 상황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일단 말씀하신 탄소중립산업법은 관련 부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종의 기본법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체적인 탄소중립산업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패널 말씀하시니까, 제가 작년에 중국 풍력회사를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희는 정부가 이런 것 안 해 주냐. 이런 이야기를 곳곳에서 할 때마다 좀 아쉽고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광 포함, 풍력 포함, 이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연관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도 우리의 경쟁국하고는 비슷한 수준의 정부 지원이나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규제 부분도 환경 규제부터 해서 다양한 규제들이 있는데 저도 한번 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후보자님, 저 김성원입니다.

6월 28일 지명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29일입니다.

○김성원 위원 예, 29일 날.

그 전에 며칠 전에 연락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발표한 것은 29일이고 며칠 전에 연락받으셨어요, 지명 발표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는 그날 당일……

○김성원 위원 당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당일 받았습니다.

○김성원 위원 인사권자하고 인연은 어떻게 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인사권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적절해요. 괜찮아요.

어떤 인연으로 장관으로 지명이 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는 특별한 인연은 없습니다.

○김성원 위원 특별한 인연은 없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그러면 누가 추천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장관 자리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장관으로 추천됐는지 알아야지 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

○김성원 위원 자, 그러면 그날 연락받고 그날 발표하고. 그러면 연락받고 바로 오케이 했다는 뜻이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아, 그건 아니고요.

○김성원 위원 아니, 그날 연락받았다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지명 사실은 그날 연락받았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의향을 물어본 것은 며칠 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한참, 좀 됐습니다.

○김성원 위원 한참이라는 게…… 답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인사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소소하게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소소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정도는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9일 날 오전에 연락받고 박용만 회장하고 통화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박용만 회장하고 통화했느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안 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박정원 회장하고는 통화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박……

○김성원 위원 박정원 회장하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안 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두산그룹 아무하고도 통화를 안 하고…… 안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가 두산에너지였었기

때문에……

○김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두산에너지빌리티의 박지원 회장님이 계십니다.

○김성원 위원 박지원 회장하고는 통화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뭐라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일단 두산에 뭐랄까, 회사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축하와 당부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성원 위원 기재부 국장을 하시다가 두산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왜 가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김성원 위원 짧게 얘기해요. 왜 갔느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성원 위원 돈 때문에 가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꼭 돈 때문은 아니고요. 일단 현장 오퍼가 왔었고, 저한테 제안이 왔었고 그리고 실제 민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경험도 하고 싶었고 또……

○김성원 위원 그러면 다시 올 것 계획하고 나가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부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민간기업으로의 탈출 러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는 기본적으로 공직과 민간이 좀 더 교류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자꾸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더, 그렇게 찬성한다는 의미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나간다고보다는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게 좀 더 많았으면, 서로 이해의 폭이 좀 넓혀졌으면 하는 생각은 합니다.

○김성원 위원 아, 참 나……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두산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산이 최근 10년 동안에 산자부의 산하 공공기관하고 계약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9조 8000억입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반대로 생각해 지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두산에 있었던 분이 산자부장관으로 온다?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규정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요.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공직 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어떤 공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김성원 위원 아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이 정부기관과 계약을 하게 된 것은 그 나름대로의 경쟁력과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원 위원 자, 그러면 원전 해체, 고리원전 1호기 해체가 최종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두산에너지빌리티·한전KPS·한수원·현대건설, 이런 데가 다 참여하겠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두산에너지빌리티 배제시켜야지 되는 거지요, 정상적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그 과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만 장관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거래예요. 그게 이해충돌이에요. 영향을 꼭 행사해야지 되는 것이 이해충돌이 아니라 장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후보자님은 장관직을 수락하면 안 돼요. 두산에도 나쁘고 산업부에도 나쁘고. 지금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장관을 수락한 것밖에 더 돼요?

두산 배제하는 것 맞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는 해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김성원 위원 아니, 저기 잘 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두산에서 있다가 장관으로 왔는데 내가 직접 지시는 하지 않더라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게, 이해충돌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런 말씀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자꾸 동문서답하시네.

제가 재산 관련해서는 이따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김원이입니다.

장관후보님, 아까 그런 말씀 잠깐 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나 미래를 봤을 때 민간기업과 공공, 정부에서 역할 했던 사람들이 교차해서 서로 긍정 영향을 미쳐야 된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공유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가장 잘한 장관 추천 중의 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이 있고 기대가 크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장관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두산 사장 하실 때 좀 잘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장관…… 시절에 했던 말들은 다 잊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기는 이른바 두 가지의 대전환이 동시에 겹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AI·반도체·빅데이터·자율주행 등 이런 산업 대전환의 시기가 크게 오고 있고, 하나는 탄소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바뀌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가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때보다 더 큰 의미의 시대 대전환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깊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부, 현재는 산업과 통상과 에너지를 다 장관님께서 통솔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무거운 짐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산업과 에너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그런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왜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산업, 일단 에너지는 제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제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김원이 위원 에너지 자체가 산업화가 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원전 산업이나 재생에너지산업, 풍력이나 태양광 모든 부분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산업과 에너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이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비슷한 취지인데 이 첨단미래전략산업이라고 하는 산업들이 대체적으로 다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소비하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사실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맞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리고 이 전기가 옛날처럼 그냥 석탄 때고 석유 때고 해서 얻는 전기로 되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즉 RE100을 충족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이 산업과 에너지가 지금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현 에너지전환 시대에 맞춰서 특히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것은 어떻게 된단, 현재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부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산업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맞이할 거냐, 어떻게 연계해서 풀어 갈 거냐 이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고, 이게 장관님의 큰 역할 중의 하나다, 임무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한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해상풍력 관련해서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이 표 보여 주셨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해상풍력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게 시행되려면 내년부터 아납니까? 그래서 지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집적화단지 지정된 곳이라도 빨리 정부의 지원을 늘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두 번째로는 태양광 문제가, 이격거리 문제가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그 조정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이 법안은 발의돼 있는데 논의를 못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 해상풍력산업이 본격화되려면 반드시 바다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용 부두 그다음 해상풍력 설치 전용선박 그리고 배후단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다섯 군데인가 아마 배후단지를 지정하려고 계획 중일 텐데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해상풍력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전용부두, 전용선박, 배후단지 이걸 세트로 묶어서 이걸 예비타당성을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떤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들어가면 1~2년이에요. 그러면 해상풍력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른바 SOC, 해상풍력에 필요한 SOC 산업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스타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해 놔야, 면제받아 놔야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상풍력 관련한 전용부두, 전용선박, 배후단지 구성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그리고 송·배전선은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하고,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차등요금제를 대통령께서 공약하시기도 하셨거니와 대선기간 내내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여러 가지 산업발전을 이루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그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차등요금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희들 공감도 하고 있고요. 제가 취임을 한다면 잘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최남호 전 차관이 사실은 이 차등요금제 관련한 준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한 3개월 전에 보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차등요금제 관련한 준비사항과 어떻게 실행할 계획을 짜서 국회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특히나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대한 차등요금제 적용 문제를 조속히 결론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100 전용 국가산단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책실장이 발표를 했는데 준비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그런데 이게 새로운 신설도 중요한데 기존 산단의 전환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암 지역에, 제 지역구인 목포 옆에 영암 대불산단이 있는데 이 대불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다 조선업 중심의 산업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해상풍력 산업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게 기초체력이 부족한 거지요. 그러니까 국가 지원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런 어떤 RE100 전용 국가산단을 신설 적용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단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환,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에 대한……

○위원장 이철규 김성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성원 위원 주택 매매대금 입금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매매대금 29억 원에 대한 입금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안 내고 있습니다.

29억짜리예요. 이전 집 매도한 15억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금으로 14억 원을 냈다고 하는데 그거 현금으로, 가방으로 갖다줬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체를 했을 건데 그 이체내역을 꼭 좀 내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여기 매도인 누군지 알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매도인 무슨 말씀……

○김성원 위원 아니, 매도인이 누군지 아니까 매매대금 29억 원에 대한 입금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꼭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살펴보는 게 아니라 제출하세요, 그냥. 집 샀는데, 29억 원짜리 집 샀는데 그냥 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한번 보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받아 주세요, 이거는.

○위원장 이철규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향엽 위원 장관님, 먼저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산자부장관에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임명되셨던 만큼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2025년도 산업부 예산에 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일반적으로 좀 첨예했습니다.

○권향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본예산과 1차·2차 추경을 포함해서 총 12조 8606억 원 규모인데 회계별로 실링이 정해져 있어서 어디가 어떻게 쓰여진지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중에 첨단산업이 2조 4387억 원 정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산업부,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보시기에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첨단산업은 지금 현재 당면한 저성장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성장 동력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일종의 전략자산 성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나 여러 분야에서 선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아직도 경쟁력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성장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향엽 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희가……

○**권향엽 위원** 그러면 첨단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첨단산업의 생태계 강화,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이런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R&D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장관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통상, 무역, 산업 등 다 관장을 해야 되는 총괄적인 건데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게 통상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한구 본부장님 이하 산업부 공무원들께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관세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전통 제조업 경쟁력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후보자님께서 20년 넘게 기재부 공무원으로도 재직하셨고 미국 국제부 흥개발은행이라든가 한국은행 등 실물경제 분야에서도 계셨고 제조업 대기업에서 최근한 7년간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통 제조업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산업부는 어떤 준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는 전통 제조업 할 때 우리도 문제지만 중국으로부터 오는 어떤 추격 또는 추월 이런 이슈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우리 산업이 어떤 갈림길에 섰다는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부 입장에서는 전통 제조업이 디지털화하고 일종의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지금 소위 말해서 남해안 산업벨트라고 하는, 제 지역구 광양을 포함한 여수, 목포, 포항, 울산, 창원, 거제 같은 곳이 남해안 산업벨트 지역인데요. 창원은 후보자님께서도 계셨던 회사가 거기 있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남해안 산업벨트를 기업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빅딜이라도 해서 뭔가 살려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지금은 기업들 혼자 놔둬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상황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만들어야 될 그런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렇지요? 우리나라 철강제품의 작년 수출 1위 국가가 미국이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43억 4700만 달러 규모인데 지금 미국의 관세 부과가 여전히 큰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취임하신다면 올해 1월에 출범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논의 내용을 꼼꼼하게 좀 살피셔서 정부 차원의 철강산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어려워진 만큼 새로운 방식으로 앞서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시면서 수소환원제철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산업 전환 지원과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이러한 견해에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지난 6월 26일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 사업이 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총사업비가 한 8146억인데 이 중 국비가 3088억 원 정도 듭니다.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국비가 계획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또한 철강산업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도 저희가 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이러한 철강산업이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경쟁력을 포기하고 우리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그리고 후보님, 작년 6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당시 140억 배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전례 없는 규모의 자원 발견 가능성을 암시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산업부가 납득할 만한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진행 과

정에서 있었던 어떤 정부 개입의 이슈라든지 소통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의 논란도 있었고 또 산업부 입장에서는 당시에 자원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지금 현재 실무자들하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김정관 후보자님,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공직에도 한 25년 계시고 또 민간으로서도 8년 정도 민간 경험을 하신 분이어서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시지 않을까, 특히 그냥 순수한 민간 출신이 아니라 공직에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명이 되면 공직자로서의 자세로 바로 전환하고 어떻게 보면 공직윤리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줄 알고 기대했었습니다.

첫 번째 논란 것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사실상 원전과 관련된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부장관으로 지명되어서 그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직후보자로서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미처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런 미처 놓쳤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미 오래 전부터 요청을 받았을 것이고 그것을 오랫동안 숙고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을 것이고 공직자로서 지명되어서 발표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의 절차도 거쳤을 텐데 ‘그것을 놓쳤다’? 오늘 이렇게 변명하듯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변명이 통합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내가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사직원을 내려고 했다’. 제가 어느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단순히 실수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아직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나는 사인으로서의 편리함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자세 아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경원 위원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사표 제출을 뒤늦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본인이 공직자로서의 책임 의식이 아직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부양가족 공제 부분입니다.

부모께서 250만 원씩 연금받으시는데 부양가족으로 버젓이 올리고서 2500만 원 세금 공제받았지요, 5년간?

그 전에 것은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 동안의 기록밖에 없어서 그 전 조직 기간까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나경원 위원 왜 기록이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차마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

을 못 했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잘못됐다 하면 당연히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부터 잘못됐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나경원 위원 그리고 이 자료가 국세청에다 본인이 요구하면 당연히 주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된다?

지금 5년 동안만 세금 내야 되는 거지요? 10년 전부터 본인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5년이니까 5년 세금 내면 끝이다, 그래서 5년 것만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건 아니고요. 그 전 자료까지 요청을 했는데 국세청에 보관하고 있는 게 5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경원 위원 무슨, 저희가 지금 막 확인했습니다. 2015년부터 전산 처리가 되어 있어서 지금 모두 가지고 있답니다, 국세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한번……

○나경원 위원 다시 자료 요구하시고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나경원 위원 이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게, 본인 기재부 공무원 하면서 조세 전문가 아니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조세 전문가는, 제가 조세 쪽에는 근무를 안 해 가지고……

○나경원 위원 공무원이면 이거……

본인이 아까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면밀하게 보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 비서한테 맡기고 나는 내가 안 했다 이려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답변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본인이 알고도 그랬다면 굉장히 나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알고 그랬다면 제가 공직자로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경원 위원 그러면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 나름대로는 저도 이번에 하면서 처음 알고 그런 부분까지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나경원 위원 부모가 소득이 있는데 이걸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미처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도 그게 그래서 한번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가 실무자……

○나경원 위원 이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그러셨다면 그 부분은 제척기간이 지났으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회에 환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이미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제가 국제청에 있다는 자료를 못 들어서, 제 세무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그 기간을 합산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미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경원 위원** 일단은 기본적인 자세가 틀렸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면밀히 보지 못했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답변으로 들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덕성 다음에 두 번째의 자질은 저는 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산업부장관으로서 내가 산업부 일만은 소신을 갖고 우리 국정 전반에 있어서 산업부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할 그런 소신 있는 주장도 하고 때로는 국무위원으로서 그것을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환경부장관후보자께서는 90% 신재생에너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에너지믹스를 얘기하셨는데 90% 신재생에너지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환경부장관후보자께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제가 미처 모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는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갈 생각,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특히 AI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안정적인 그리고 저렴한 전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맞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인력 유출, 경쟁력 약화 이런 것으로 2030년까지 47조 4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새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탈원전을 주도했던 주역들이 모두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어떻게 바꾸었냐? 감원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김정관 후보자를 장관후보자로 내세웠어요. 저는 잘못하면 김정관 후보자는 일종의 모양 맞추기 얼굴이 될 수 있다. 소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면 90% 신재생, 아까도 RE100 산단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RE100 산단도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가질의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전 재무구조가 나빠진 이유 이런 걸 보면 결국 원전을 탈원전 이렇게 심하게 하면서 된 것이고 한데 이것 도대체 어떤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한전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면서 RE100에 대규모, 실질적인 여러 가지 지원, 예산 정책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한전의 수익모델 생각한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한전의 적자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원가가 많이 급상승하면서 생겼던 이슈일 거고요.

○**나경원 위원** 그 전부터 한전이 적자가 났었잖아요.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일단 그때가 굉장히 심각해졌던 거고 우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흑자는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탈원전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RE100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에너지 업계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RE100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도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대에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가 필요한 것도 분명하고요. 말씀하신 한전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치하는 것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숙제여서 제 나름대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그 답안을 같이 찾아보고 싶고 그 방안을 마련해서 논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앞서 중기부장관 청문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국혁신당은 청문회를 정책 검증, 자질 검증을 통해서 국가정책을 제대로 이끌 책임자의 역량을 가늠하는 국민 면접의 장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김정관 후보자께서는 기재부 고위공무원 또 두산에너지빌리티 임원을 거치면서 민관에서 모두 아주 최고 수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지금 국내 산업 위기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전 같은 특정 산업 분야와 깊이 연관돼 있어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께서 제대로 된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급한 통상 현안부터 간단히 여쭙보겠습니다.

한국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관세협상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심화와 같은 미국발 관세 충격이 우리 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쌀 등에 대한 수입 확대 또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 농축산인들의 큰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상 당국이 대미 협상 타결을 위해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서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이 점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렇게 개방을 요구하는 소고기와 쌀은 우리 농민, 소비자들의 반발이 큰 아주 매우 민감성이 높은 품목이지 않습니까. 현재 어느 수준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후보자 신분이라 전체는 못 보고 있지만 개략적인 내용은 보고받았습니다.

○**서왕진 위원** 혹시 소고기나 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 이미 수용을 한 상황은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모든 어젠다들이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많은 국민들이 우리 통상본부가 너무 쉽게 미국 측 요구에 수용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상당히 제기하고 있는데 후보자 판단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렇지는 않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한은 있습니다마는 기한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입장에서 통상교섭팀들이 지금 열심히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왕진 위원** 산업부문에서도 이제는 기후 대응 또 탈탄소화, 에너지전환,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고 대응이 되어야 글로벌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인식은 동의하고 계시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서왕진 위원**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2030 NDC를 재구성하면서 산업부문의 목표 자체가 굉장히 완화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계의 요청이 상당히 강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서왕진 위원** 이런 접근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라 감축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아직까지도 산업계에서는 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런 요청을 했던 자리에 있다가 여기 와 있으니 좀 난감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NDC를 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가야 될 길이구요.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바람은 우리 산업이 경쟁력도 갖추면서 NDC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내고 하는 게 또 여기 와 있는 정책자들의 몫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산업계와 NDC 목표들이 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산업부문은 2035년 NDC를 우리들이 결정하고 국제사회에다가 약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서왕진 위원** 2035년 NDC부터는 좀 더 전향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걸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확대해서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원으로 실제로 기업이 탈탄소화를 하는 것 또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아주 절체절명의 과제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의 재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배출권 유상할당제도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하면 가격 신호기능을 갖추어서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시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NDC 2035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서왕진 위원** 후보자,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원전은 활용을 해야 되지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자’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는 그런 인식들에서 지금은 조금 더 진보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이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글로벌 트렌드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고, 실제로 글로벌 에너지 투자 부문에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원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크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서왕진 위원** 그런 점에서 후보자께서 그런 상황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원전기업 출신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어떤 에너지정책의 큰 방향 전환이라든지 국제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가 저질렀던 퇴행을 오히려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또 환경단체나 여러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외를 다닐 때는 제가 원전을 했지만 국내에 있을 때는 해상풍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AI 시대에 이 막대한 전원을 어떻게 확보할까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원전의 역할은 불가피하다는 것 분명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 측면에서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용적인 방안으로 잘 조화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왕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밖에서는 후보자에 대해서 원전 편향적 인사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 현재 우리 에너지 구조 자체로 보면 원전은 상당히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데 비해서 재생에너지는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안 되는 이유도 현장에서 체험을 해서 규제 이슈라든지 조금 전에 나왔던 인프라 이슈라든지 공공부문의 역할이라든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R&D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우리 경제에 필요한 만큼, 저는 재생에너지가 에너지안보, 국가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계속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언 위원**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자질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지요.

김정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서 25년 동안 근무하셨고요. 그래서 정통 경제관료로서 전문성을 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두산그룹의 임원으로 7년 동안 근무했고 최근까지 두산에너지 사장으로 근무하셨지요.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공직 경력이 있고 두산그룹에서 근무한 민간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과 이력이 산자부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반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지금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 문제 그리고 에너지산업의 현안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보이고요. 부정적으로 보자면 두산그룹은 산업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고 후보자는 그 두산그룹의 핵심 기업에 근무하셨던 분이기에 때문에 후보자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직무와 후보자의 민간 경력이 이해관계에 있어서 충돌될 우려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수행할 수 있을지 그 점을 몇 가지 좀 여쭙보려고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충돌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후보자께서 두산에너지 사장으로 재직하실 당시에 두산에너지와 산업부 산하 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좀 봤어요. 보니까 한국수력원자력과는 양수발전소 계약 체결했고요. 서부발전 그리고 남부발전과는 가스터빈 관련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중부발전과는 해상풍력 관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산자부로부터 직접 한 26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이렇게 최근까지 사장으로 재직했던 두산에너지는 여러 지원을 받고 산자부 산하기관과 여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산업통상자원 정책을 집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두산그룹 등 전 직장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후보자의 답변 자료를 보면 한국전력 그리고 두산에너지 주식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곽상언 위원 국민들이 장관의 직무 그리고 후보자의 이해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데 후보자께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공직자로서 취임이 된다면 어떤 책무와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혹시라도 이해상충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좀 말씀도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곽상언 위원 추상적인 답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구체적으로는 두산에너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김성원 위원** 관여하면 범죄지. 그것을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돼요?

○**위원장 이철규** 아니, 좀 조용히…… 질의하는데, 김성원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곽상언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산업부 장관은 대한민국 산업생태계라는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이끌어야 하는 담임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곽상언 위원** 산업생태계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고 산업들이 있지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로 거대 기업, 대기업들하고 그런 생태계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불과 얼마 전까지 두산이라는 특정 학생의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원전 수출도 하셨고 두산의 핵심사업을 앞에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을 책임져야 되는 담임선생님이 되실 건데요. 아마도 과거에 특별한 과외를 했던 특정 학생에게 마음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 지르신 것 같은데, 산자부장관으로서 두산그룹에 더 마음이 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후보자의 식견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산에너지빌리티를 포함한 두산그룹의 계열사도 굉장히 많고 그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곽상언 위원** 그런데 답변서를 보게 되면 후보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업 육성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산업의 균형발전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장관이 되시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생태계에 있는 전체 기업, 특히 두산그룹의 계열사와 경쟁관계나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산업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일단 제 자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직자로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곽상언 위원** 그건 후보자님의 자세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특정 기업의 이익과 국가 산업 전체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후보자께서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는 당연히 국가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이익의 이해와 국가의 이익이 상충될 때는 국가의 이익이 최우선한다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건 관점이고요. 기본적인 원칙을 조금 더 구체화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지금 마땅히 후보자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장관직에 임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권유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웅 위원** 후보자님,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우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드려야 한다는 그런 국회의원으로로서의 사명감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개인적인 유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FC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한 그 당사자인 네이버와 두산건설 두 곳의 대표 출신을 왜 하필 이곳 산자위에 해당되는 중기부장관과 산자부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아주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원전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알려진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 출신이신데 산자부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를 들어서 혹시 두산에 무슨 특혜를 주는 모습일까 아니면 어떤 걸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겠다고 밝히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끌고 가겠다는데 앞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에서 볼 때는 이게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원전이 주력 사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원전 해체 사업을 독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아까도 대체 기업이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외에도 재생에너지 또 해상풍력 설비 이런 것들도 두산에너지빌리티에서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확인했는데 사실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가져가고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이런 쪽으로 에너지 중점을 옮겨 가더라도 두산에너지빌리티에서는 큰 손해 볼 것 없네요. 원전 해체 사업도 대체할 만한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몫도 두산한테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 부분은 단순히 어떤 개별 기업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에너지산업의 조화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상웅 위원** 그래요?

오전 동료 위원님 질의에서 두산건설이 성남FC를 통한 거대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을 지적했고 그리고 재판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 일단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좀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두산과 어떤 타협을 미리 한 것 아닌가 이런 오해는 좀 지나친 기우입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미처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박상웅 위원** 후보자님은 공직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가 했더니 한국은행으로 빠져나갔다가 또 민간기업으로 갔다가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표현으로는 그런 민간 부문과 공직 부문이 서로 왔다 갔다 자주 교류하고 이직하고 다시 복직하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드문 발언입니다. 한국 공직자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민간 부문으로 가서 월급 많이 받았습니까? 공무원보다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민간에 가 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이해나 그리고 정부 정책이 실행되는 게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서 서로 이해를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두 분께……

○박상웅 위원 후보자님, 2022년도 3월 윤석열 정부가 막 들어설 무렵에 두산에너지빌리티로 직장을 옮기지요.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상웅 위원 그러면서 다시 원전 산업이 호황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마음속으로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 당시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박상웅 위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이후로 다시 원전 해체 산업이나 재생에너지 산업 또 해상풍력 산업 이런 쪽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런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박상웅 위원 안 해 봤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상웅 위원 지금 네이버 출신이 중기부장관 지명되었을 때—6월 23일입니다—갑자기 시가총액이 17조나 뛰어올랐고 시총 서열 12위에서 5위로 올라섰어요.

김정관 후보자가 산자부장관으로 지명되었을 때가 6월 29일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상웅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 주식거래일입니다. 6월 30일 날 시가총액 14위가 갑자기 또 5위로 올랐습니다. 이것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들어 보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일인데 이런 일을 본인도 한국은행에서 자본 관련한 전문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본인은 알고 예측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혀 예측을 못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지금 6월 2일 자 기준을 했는데 제가 임명되기 전에 이미 주가가 한 6만 원대 후반 또 7만 원 넘어간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박상웅 위원 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게 뻔하고 그 상황에서 앞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일반적인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원전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해체 산업의 특혜를 누릴 것이고 해상풍력이나 기타 등등으로 두산과 이재명 당시 후보자와의 특수관계를 고려해서 아마 그런 변화가 주식시장에서는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아, 그렇지는……

○박상웅 위원 문제는 29일 날 지명이 되고 나서 정점을 찍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서열이 어떻게 5위에서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시총에서는 두산과의 어떤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력관계가 확실히 드러날 것이 예상된다 하는 판단을 했고 그 답을 김정관 후보자 지명으로 보여 준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런데 조금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힘을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웅 위원** 주가 그래프 보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금도 재판 진행 중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상웅 위원** 그분 학자 출신인 것 같은데, 국가 에너지정책을 어떤 정권에 곡학아세 하는 모습으로 주무장관이 이끌려 가면 안 된다.

지금 본인은 재생에너지에도 관심이 많은 전문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요? 탈원전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상웅 위원** 그러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화시켜서 가더라도 만약에 이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을 가속화시키는 액션이 취해지고 주무장관에게 오더가 내려온다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게끔 노력을 하려고요.

○**박상웅 위원**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렇게 안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때는 장관직을 버리고 싸우세요. 그게 아까 말한 민간으로 갔다가 공직으로 왔다 하면서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익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김해을 김정호 위원입니다.

김정관 후보자님, 두산에너지빌리티에 22년 3월부터 25년 7월까지 마케팅부문장 그리고 25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장 직책을 역임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정호 위원** 한수원 컨소시엄에서 두산에너지빌리티 역할 뭐였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잠깐, 한수원……

○**김정호 위원** 이번 체코 원전 수주하는 데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맡은 역할, 어떤 부분을 담당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팀코리아의 일원으로서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주 핵심 기기 제작의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지요.

이게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포션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한 3조~4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3조~4조 원.

스코다파워는 언제 인수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 기억에 꽤 오래되었는데 갑자기 연도가……

○**김정호 위원** 2009년에 했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맞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지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원래는 100%였었는데 최근에 상장을 했습니다, 체코 시장에서. 그래서 지분율이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66.7%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호 위원** 스코다파워 주력 제품이 터빈이잖아요. 풍력터빈도 포함됩니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스코다는 풍력터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요? 순전히 증기터빈, 원전 스팀터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정호 위원** 혹시 후보자가 되고 난 다음에, 지명받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하자마자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전자서명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는 그 당시는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보고받았었고요. 체코 기업,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 체코 정부도 굉장히 서둘렀던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6월 3일 날 대통령선거 투표였잖아요. 4일 날 취임을 했고 6월 5일 날 첫 국무회의에 산자부가 이걸 들고 와서 두 쪽짜리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파악도 못 한 상태에서 서둘러서 산자부가 전자서명을 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한 이유나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기억하기는 당시에 체코 내에서 여러 가지 법적 분쟁들이 있었는데 체코 정부가 그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갖게 되어서 그 부분을 서둘러서 계약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체코 정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산자부는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그것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한 것은 이 책임을 돌이킬 수 없도록 알 박기, 대못 박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되는데요.

그건 그렇고 이게 계약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했어요. 사업 규모가 2개 호기 4070억 코루나, 한화로 26조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5호기는 EU 집행위원회가 대출 승인을 해서 자금 확보가 되는데 6호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겁니다. 신청되지도 않았고 신청 예정이라는 거예요.

후보님, 이 내용 혹시 이번 준비기간에 보고받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전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이슈가 있다는 것은 보고를 받았습시다.

○**김정호 위원** 이것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10개 원전 수출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그 첫 번째로 체코 원전을 밀어붙였어요, 실적 쌓으려고. 그런데 이것 이재명 정부에게 떠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될 수 있고 이행 책임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지 산자부장관 취임하시면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또 이 요약보고에 사업기간을 89개월로 보고를 했어요. 이게 바라카에 비해서 1.4배 기간을 연장했다고 산자부가 협상의 진전이라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건설했던 원전들 공기를 비교해 보면 공기 지연이 없을 거라고 하는 장담이 무색합니다. 지금 UAE의 바라카 1호기가 44개월 지연됐고요. 신한울, 국내입니다. 신한울 1호기가 68개월 지연됐어요.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새울 3호기,—신고리 5호기라고도 하지요—52개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한수원이 지금까지 ‘고정가격에 적기완공이 한국원전기술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여전히 체코 원전에도 문제없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 정말 살펴보셔야 됩니다.

올해 5월 7일 한수원이 한전에게 UAE 바라카 원전 건설사업의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 정산금 10억 불 요구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돼서 지금 런던 국제상사중재원에 500억대 소송 비용을 내고, 양쪽에, 이 소송이 걸려 있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시 보고받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복병들 또는 암수가 많이 있어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을 원전 진흥, 뭐 원전 수주했다고 장담,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혹시 적자 수출로 연결되고 국민 부담으로 떠넘겨지지 않을까 꼼꼼하게 살펴보고 챙기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에 더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제가 인사청문요청안과 부속서류를 직접 다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특이한 사항은 별로 보이지 않고 병역 면제 부분이나 부양가족 공제 정도가 좀 걸리는데 오늘 이미 다른 분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향후 담당할 업무에 관해서 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세 분 정도 위원님께서 이해충돌 관련된 우려를 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우려

가 있기는 합니다.

산업통상부가 관여하는 계약이나 업무에 본인이 근무했던 두산에너지빌리티를 포함해서 두산그룹이 관여되는 경우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 국내, 상업운전 기준으로요. 국내 해상풍력 터빈 시장에서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해상풍력에서 외산을 빼고 나면 대부분이 두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과반이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고 또 새로운 터빈들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에너지 분야를 산업통상자원부가 계속 맡을지는 사실 아직 논의 중이라 미정인데, 이관되기 전까지라도 이에 대해서 우려는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거는 지금 해상풍력 사업들이 후보자가 근무했던 회사의 제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돼요. 만약에 후보자가 관여해서 이거는 내가 근무했던 회사랑 관련되니까 더 일부러 엄격하게 보거나 하면 해당 지역의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제가 몇 개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관심 있게 보고 있던—다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형식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두산그룹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일반인들의 인식에서는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에 우호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과거 회사에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더 불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일반인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내외적으로 두산그룹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없어야 된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실제 업무에서 의사결정 라인에서 빠져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다른 분들도 제안하셨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거 이외에 제가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대내외에 다시 공개도 해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단순히 빠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밑의 다른 직원들이 ‘우리 장관이 근무하던 회사니까 여기에다가 혜택을 줘야 장관님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후보자가 정말 잘 고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질의 사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 마련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오늘 주신 내용 포함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가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공직자로서의 어떤 뭐랄까 자세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대우가 없다는 원칙이나 또 실제 라인에서 제외되는 것 이외에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다시 살펴보고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이 부분은 그런데 미리 생각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간기업 출신이 장관이 되는데 언론에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객관적으로 업무를 하겠다 정도만으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게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민간에서 수출 업무에도 관여했고 에너지 분야가 빠지면 지금 당장은 제조하고 수출 정책이 중요한 업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경험성이 있어서 민간 출신들을 장관으로 이렇게 지명을 한 건데 만약에 이런 이해충돌 분야에 대해서 업무 재직 중에 우려가 불식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민간 출신이 장관으로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모두발언 자료를 보니까 되게 좋은 말씀이 많이 있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산업 전반에 관련해서 AI 혁명하고 에너지혁명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에너지는 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AI 혁명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제조나 수출 정책 분야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근무하신 것을 보니까 주로 글로벌 경제 동향 관련된 리서치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 말고 실제로 산업통상부장관으로서 우리나라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른 분들도 얘기했지만 좀 어려운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시간 되면 2차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느 분야에 주력을 하고 어떤 분야는 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게, 정부가 나서기가 어려운 부분은 민간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획이라든지 좀 이렇게 빅 픽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AI 혁명과 에너지혁명을 언급한 건 그 담당 부처를 떠나서 우리 산업에 그리고 제조업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AI로 어떻게 전환을 해 나갈 것인지 에너지도 마찬가지로라는 부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질의하실 때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충남 천안을 이재관 위원입니다.

공직자 출신으로서 민간 부분에서의 그 경험이, 지금 현재 여러 우려의 부분이 있지만 그런 우려를 현장성 있는 산업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님의 앞으로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성공한 후보자, 장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이 됩니다.

오늘 충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수해 피해 현장이 상상외로 큼니다. 그중에 공장·기업들의 침수 피해도 현재로서는 추정일 뿐 빠른 피해 조사와 또 그것에 따른 복구 지원 이런 부분들이 병행돼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이 상황에서 또 자연재해로 인해 기업인들, 근로자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중기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 부분에 먼저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이재관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지역균형발전의 주무 부처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지역균형발전은 어느 특정 부처라기보다는 행자부나 저희 산업부……

○이재관 위원 맞습니다. 모든 부처가 관련돼 있는 사안입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주무 부처는 분명히 산업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이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산업부거든요. 물론 행안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정책이라든지를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또 어떤 현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산업부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인구 비중이라든지 또 GRDP 비중이 역대 정부에서 계속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격차는 커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결국은 지방에 기업과 일자리가 없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재관 위원 저는 일자리, 즉 우량한 기업 이런 부분들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현재 산업부 정책 중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혜택을 본 기업 건수가 263건 정도 되더라고요. 수도권 기업이 신설 또는 증설했을 때가 253건, 수도권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가 1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래 이 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본래 취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담겨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비중에서 보면 사실 본사 이전의 효과는 지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통계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정책적인 보완이라든지 복안이 좀 있으실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사실 기업들이 인력이나 자금, 정보 등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수도권을 선호하는 게 사실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지금 말씀하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든지 세제 혜택이

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분절적으로 되어 있고 내용들이 지방에서 기업들이 갈 만한 정주여건이라든지 규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저희가 가져가야 될 지역균형발전은 수요자, 가고 싶은 기업들이 갈 만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촉진보조금은 그것을 촉진할 수 있는 일종의 작은 촉매제의 역할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약에 한다면 그와 같은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를 많이 만들고 제도를 확립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재관 위원 맞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의 주무 부처가 과연 어딘가를 강조했던 부분들이 산업부 혼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무 부처로서 각 부처가 이렇게 분절적으로 돼 있는 그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역할이 바로 산업부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말씀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믹스와 관련돼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간결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전력수요가, 90GW가 예년보다 2주 빠르게 지금 현재 돌파를 했다고 할 정도로 전력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월 현재 보니까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49.5%로 감소를 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화석연료 비중이 절반 이하로 기록한 것이 역대 처음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어떤 지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력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발전량이 줄었다는 것은 에너지전환이 충분히, 하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경향성들에 맞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맞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기본 계획에 따라서 신재생 설비라든지 하는 어떤 계획들이 앞으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역량들을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홀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홀하고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도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재관 위원님 질의한 것과 좀 비슷하기는 한데 저도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에도 대한민국을 5대 초광역권, 3대 특화권 해서 5극 3특 체제를 통해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송재봉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배려를 넘어 우선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서면질을 했더니 후보자님께서도 ‘확실한 지방 우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제가 내심 좀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지방 우대’라고 하는 건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짧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역균형은 그동안 해 왔던 방법으로는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확실한 지방’이라는 말을 썼던 것은 우리 정책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제·규제 그리고 예산 각 분야 분야마다 지방을 고려할 수 있는, 각 지방에 어떤 정책이나 예산을 결정할 때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확실한’ 말을 썼고요.

그게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지방이 좋으면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이었다면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확실한’ 말을 썼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 말씀대로 꼭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송재봉 위원 특히 제가 볼 때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존 산업도 중요하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방에 얼마나 육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보면 2023년에 세웠는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도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시고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지난 3년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로 예산 지원 현황을 좀 봤어요. 그 표 보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송재봉 위원 수도권과 지방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이렇게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니까 수도권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말로는 균형발전을 얘기하지만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고 이것이 국가전략이나 정책에서 이렇게 가니까 민간투자계획을 보면 원래 2047년까지인데 수도권에는 648조 8000억의 계획이 있는데 비수도권에는 69조 7000억밖에 안 됩니다. 이 상태로 간다고 하

면 점점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역전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정도의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는 지방 우대, 균형발전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이 흐름을 단절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 예산의 배정에서부터 확실하게 다르다 이런 것을 좀 보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저희 부분만이 아니라 예산 당국이나 다른 부처하고 함께 지역균형·지역경제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인식을 가지고 그런 분야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다음 예산편성에서부터 좀 더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송재봉 위원**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한석탄공사 지금 조기폐광에 따라서 채탄 기능은 종료가 됐고 석탄공사도 어디로인가 통합을 하든 조직개편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송재봉 위원** 혹시 계획이나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일단 그 내용을 개략적인 내용 정도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남아 있는 부채를 처리하는 이슈라든지 직원들의 고용승계 이슈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폐광지역에 대체 가능한 사업을 어떻게 키워 나가야 될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계속 살펴보고 제 개인, 근본적으로는 폐광지역에 계셨던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우리 경제개발 과정에서 얼마나 노고와 수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가슴깊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에서 이 지역들이 폐광으로 인해서 또는 석탄공사의 정리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이런 산업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장의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최근 들어서 석탄공사 내부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노조에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이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재봉 위원** 노조의 주장을 보면 사장님이 조찬 강연을 이유로 7시에 출근해라 그런데 내용을 보면 본인 자랑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직원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 석탄공사를 정리하러 간 분이 '100년 석공'이라고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현실성도 없는 것을 기획해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문제의식도 있고 또 직원에 대한 성적인 비하 발언 이런 것도 노조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폐광과 관련해서 행사를, 굿판을 벌이려고 해서 그걸 제지하느라고 힘들었다는 이런 주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장의 기행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도 이번에 최근에 알고 있어서 내용을 한번 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지난해 경영평가도 D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을 보면 그 사장에 대한 징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정리 과정에서 사장이 이렇게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신산업을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또 적절한 어떤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송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는 지금 기재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은행에서도 근무를 했고 2018년에 두산 그룹에 입사해서 최근까지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을 했어요.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업무영역을 보면 원자력 그다음에 또 화력, 가스터빈,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 그리고 플랜트 사업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있었어요. 이 모든 부분의 업무영역이 거의 산업부의 업무영역과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해충돌의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성원 위원이 질의했는데 원전 해체 산업, 거기에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그 사업을 맡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걸 맡게 되면 장관 때문에 맡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장관이 있었던 회사는 안 되니까 다른 업체에 주면 그건 전문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후보자는 민간과 공직 부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한 건 뭐냐 하면 공직사회가 민간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걸 정확하게 소통을 해서 그 부분을 잘 들어 주면, 그걸 잘 해결해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충돌 문제가 이렇게 바로 문제 되는 이 기업의 사장 출신을 왜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임명했을까, 의문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두산에너지의 주력사업은 원자력 관련된 산업입니다, 사실. 가스터빈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외 원전 수출 사업에도 지금 깊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탈원전을 기본적으로 주장했던 정당입니다. 물론 지금 탈원전을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탈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잘못된 정책이었다, 앞으로는 원전을 적극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정책 기조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갈 거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에서 왜 원전 사업을 담당했던 후보자를 산자부장관으로 임명했을까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후보자님이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직접 참여했다 그랬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민주당 위원님들 또는 민주당에서 이게 저가 수주다, 이게 웨스팅하우스와의 사이에 무슨 문제 때문에 이게 뭐 문제가 있다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직접 거기에 참여하셨으니까, 26조의 2기를 수주한 것이 저가 수주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형수 위원** 제가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1GW짜리 2기를 하는 거지요? 그걸 26조의 수주를 했어요.

신한울 3·4호기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 기억에 한 6조 원 정도……

○**박형수 위원** 하나에 6조 정도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형수 위원** 그래서 합쳐서 2기가 11조 7000쯤 됩니다. 그러면 1기에 6조쯤 들어가요. 그런데 신한울 3·4호기는 1기가 1.4GW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자꾸 저가 수주라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이거는 별문제이고.

이런 민주당 정권에서 왜 산자부장관으로 후보자를 임명했을까? 그래서 자꾸 보은 인사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성남FC 뇌물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용도변경을 통해서 특혜를 줬고 그리고 성남시는 성남FC에 50억 원을 후원을 받으면서 이익을 봤지요. 여기에 대한 보은 인사가 아니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거는 보은 인사가 아니라 향후에 재판 대비용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이 성남FC 사건에서 뇌물공여와 수수는 한 묶음으로 묶여 있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이 정지돼 있지만 나중에 재개가 되면 여기서 성남FC에 후원한 것이 뇌물로 판정이 되면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여와 수수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공여 재판은 정지가 되지 않아요.

이 재판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 이거에서 무죄를 받으면 나도 무죄받을 것이고 그걸 못 받으면 내가 큰일 나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의사표시 아닌가 싶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후보자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후보자, 잠실에 있는 시영아파트 산 적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형수 위원 그걸 구입한 시기가 2005년 6월, 5억 1000만 원에 구입했던데 7월 31일에 등기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형수 위원 이 아파트 구입하고 난 이후에 매매한 건 언제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2018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2018년 매매할 때까지 이 아파트에 단 하루라도 산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구매를 하고 바로 IBRD에……

○박형수 위원 일단 산 적 있다, 없다부터 답을 하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산 적은 없습니다.

○박형수 위원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산 적은 없는데 그 아파트의 상황 자체가 아시다시피 한 3년 갔다가……

○박형수 위원 잠깐만, 물어볼게요.

이 아파트를 구입하던 시기가 후보자가 국제부흥개발은행 여기에 근무하러 갔던 그 시기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형수 위원 그때는, 이미 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여기 파견 간다라고 결정된 이후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형수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거기 가 가지고 근무하고 돌아오는데 그 시기에, 그 직전에 왔다 그러면 최소한 3년 동안은 전혀 살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3년…… 그 당시 기준으로 제가 왔다 오면 살 수 있는 정도, 재건축이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 어떤 평가가 있어서 제가 그걸 샀던 겁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제가 보충질문 때 다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세종갑구의 김종민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장관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 모든 국무위원들 다 중요한데 저는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

한 자리가 산자부장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 상황을 볼 때 산업이 대전환기에 있거든요. 산업이 어디로 가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도 있지만 지금은 산업 대전환기가 핵심이에요. 이런 시기가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 박정희 정부 때 우리나라 산업의 기초를 닦을 때, 중화학공업 기초를 닦을 때, 60년대~70년대 이때가 1차 전환기였어요. 그래서 포항제철, 철강산업 이게 그때 시작된 것 아닙니까, 청구권 자금 가지고?

2차 전환기가 김대중 정부 때 정보고속도로 깔면서 IT 산업으로 전환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데 전환을 했지요.

이번이 3차 전환기입니다. 이 전환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이제 정말로 G10이 아니고 G3까지도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여기서 낙오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문제를 대처하는 데 산자부장관이 우리 정부 인사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포항제철 만들 때 박태준 씨가 장기영 부총리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런데 박태준 씨가 이겨요, 부총리를. 부총리가 그만두고 나갑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 말을 들으니까 부총리가 나가 버렸어요. 정보고속도로도 다 반대했습니다. 경제부총리고 뭐고 다 반대했어요. 청와대 수석이고 다 반대했는데 그때 이것 하자고 김대중 대통령을 독대해서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자!’ 이래서 한 겁니다.

지금 이 산업정책 관련해서 우리 장관께서 그런 정도의 결기와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어야 대한민국 미래가 밝다……

제 얘기가 어떻게, 잘 전달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 정도 할 자신 있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이게 맞다고 생각되는 산업정책과 이 대전환 기초를 가지고 대통령의 결심을 누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받아 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명감 혹은 준비 그런 게 없이는 지금 산자부장관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겁주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산자부장관이 되시면 한 다섯 가지 정도, 산업전환과 관련된 다섯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각각에 대해서 장관후보자의 비전 혹은 전략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쭙볼게요.

먼저 간단하게 다섯 가지……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섯 가지를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가 새로운 산업지도가 필요하다. 지금 수도권 중심의 낡은 산업지도 이것 가지고는 이 AI·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못 버팁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과 일자리민생 산업지도로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 국토 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

두 번째는 R&D 시스템 이대로 놔두서는 미래가 없다. 지금은 대개 단기 성과 위주 그 다음에 관 주도의 공모 R&D예요. 이것 가지고는 지금 글로벌경제 못 한다. 현장 주도,

혁신 중심으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첨단산업의 인재 확보,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대공화국인 것 아시지요? 중국은 이공계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대학 순위가 중국으로 다 재편돼 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과학기술혁신국가로 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것, 이게 과기부나 교육부 일이 아니에요. 산자부의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전.

그다음에 네 번째가 에너지전환, 이것 되게 중요한 산자부의 핵심 과제지요. 지금 에너지고속도로를 수도권 중심의 송배전망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말고…… 고속도로라는 게 꼭 콘크리트 도로만 깔아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운반수단, 저장수단 이런 신기술을 동원해서 실제 고속도로를 실현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수많은 갈등과 예산을 들여 가면서 송배전망에 올인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일이 외교부장관이 아니고 산자부장관의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국, 중국의 협력 속에서 60년 동안 엄청난 수혜국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중국이 우리한테 특혜가 아니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미국, 중국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재앙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경제영토는 어디냐, 도대체. 이 새로운 경제영토에 대한 비전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 산업 대전환 시대의 우리의 산업전략이라고 보는데, 이것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후보자님의 의견을 들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첫 번째가 새로운 산업지도가 필요하다. 단순히 무슨 지방 좀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이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건데.

일자리의 남방한계선 혹시 들어 보셨나요?

PPT 좀 계속 띄워 줘 보세요, 한번.

우리 주요 대기업의 R&D센터가 저 수원 밑으로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고급 인재들은 수원 밑에서 안 살아요. 거기에 무슨 돈이 몰리고 정보가 몰리겠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주셨는데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비중을 보면 수도권 편중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이게 23년도에 다 결정한 겁니다. 산자부장관도 들어가서 이런 결정에 그냥 손 들어 준 거예요. 첨단산업 563조, 바이오 25.7조, 대부분이 다 수도권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꿔 낼 거냐? 여기에 대한 산업정책적인 뭔가 결단과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행안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수도 세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시작입니다, 방아쇠예요.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산자부에서 산업정책적인 비전과 전략이 나와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우선 다섯 가지 모두 다 저도 지금 한 200% 공감하는 내용이고 제가 평소에 하던 내용하고 정말 너무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경제영토, 조금 전에도 지방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 왔던 형태로는 안 된다는 그런 아주 강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까지와는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지방에 대해서 그동안은 각 부처들에 분절적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다 통합해야 될 것 같고 규제라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정주여건,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 수요자·수요기업 중심으로 지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완전히 바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첨단산업 부분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기업들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현재 자원 배분이 저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이슈인지는 알고 있고.

인재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인재 한계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있었던 곳의 회사가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은 한계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동토 같은 지역이어서 사람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도 알고 있어서 각 지방들이 이번에 할 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모아 보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지금 기업 이전 보조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거기에 의존해서 또 그것 액수 늘리는 이 정도 가지고는 이게 되는 일 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고민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또 여쭙볼게요.

○**위원장 이철규**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경제관료 역량과 실물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관세협상 중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오세희 위원** 사실 한미 관세협상은 우리 산업 전반에 민감한 영향을 끼칩니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저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한미 관세협상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에 부담되는, 그런 우려들이 큼니다.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그게 세율을 조정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비용이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가 있고 국내 공급망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이 전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거래처에 납품단가 인하라든지 물류비·부품비 이런 것들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손쉽게 중소기업에 넘어올 수 있다, 이런 우려고요.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이 과연 부담할 수 있겠나, 그렇습니다. 후보자는 어떠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위원님 지적에 심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하고도 같이 밀접하게 협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관세협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별 부담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 산업부 차원에서도 이게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혹은 피해 예측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완 대책이 꼭 나와 줘야 된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꼭 이런 부분에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오세희 위원 KOTRA 자료에 따르면 23년도는 수출액이 약간 성장세에 왔습니다. 그런데 24년에는 오히려 온라인 수출이 6.8%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수출 저변에 어려움이 많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또 수출에서 밀리지 않도록 마련하고 그런 자료가 마련되면 저희 의원실로 좀,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우려가 많지 않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대응해서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오세희 위원 모든 전 세계가 달성해야 될 그런 국가적·국제적 책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각국이 태양광·풍력 등 신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정치적 접근 그리고 관련 예산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 현황을 보면 46% 정도가 감소했어요. 이게 연쇄 폐업이라는 것, 중소기업의 연쇄 폐업, 태양광 그런 부분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보급정책이 후퇴된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믹스 균형 재편을 밝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오세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태양광 보급과 관련해서 중국산 저가 패널의 시장 잠식입니다. 22년도 63%인데 24년에 80%예요, 그렇지요? 태양광에 관한 기자재들이.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경쟁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값싼 중국산을.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산 태양광 기자재들 제품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국내 태양광 기자재 생산업체들에 정부 차원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비 일부 지원이라든지 보조금 차등 지급 그리고 국산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 중국산이 80%를 잠식한 상황에서 더 이상은,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부분들은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정 정도의 수준은 우리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텐덤셀이라고 굉장히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가품은 더 이상 저희가 들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주로 고부가가치 있는 품목 중심으로 우리 국산이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면 이런 부분은,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가 점유율을, 기자재 점유율을 중국산으로 너무 가져가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오세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짧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산업에 대해서 K-뷰티…… K-뷰티 많이 들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오세희 위원** 전시인데요. 우리가 오프라인의 시장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시장에 밀려서 오프라인의 판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시·박람회.

이번에 올 초에 미국에 CES 아주 성황리에 했고 스페인에도 역시 MWC라든지 중국의 캔톤페어, 일본의 오사카 박람회, 많잖아요. 제가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필요하다.

제가 이것은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오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위원** 후보자님, 아까 보니까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두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던데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야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또 새겨들을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두산이라는 회사를 떠나서 공직에 몸담게 되신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에 어떤 문제 제기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또 정무직에 몸담은 만큼 앞으로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어떻게 보면 약간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심을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이연주 위원** 아까 다른 분들이 이미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 경쟁력이 사실은 산업경쟁력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AI 강국을 내세우면서 AI의 기술력 발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산업이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 경쟁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크게 품질과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보

면 품질이 얼마나 좋냐 그리고 원가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AI 경쟁력에 있어서 품질 경쟁력은 사실은 러닝(learning)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과 질에서 비롯된다고 보고요. 원가 경쟁력은 사실은 그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계속 돌리는 그 데이터센터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그것일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전기요금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다른 산업도 물론이고요.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모든 산업에 전기요금이 원가에서 결정적이고 AI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 아주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후보자님이 생각하실 때, 현재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의 경쟁력은 2022년에 산업용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용전기요금이 중국보다도 더 높은 상황이라 특히 AI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많은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현재보다, 특히 산업용은 현재보다 낮추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계가 있다—인프라 문제이기 때문이에요—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물론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저절로 낮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모든 것이 그대로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전기요금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발전의, 어떤 에너지믹스의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또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에너지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에너지정책이 산자부 산하에 있는데 이 에너지정책을 산업과 분리해서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현재 지금 조직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결정이 나온다고 했지만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에너지와 산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지금처럼 말씀하신 AI 시대에는 전기의 경쟁력이 산업의 경쟁력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산업과 에너지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물론 이 에너지라는 것이 또 자칫 우리가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문제 이런 걸 소홀히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또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 상황에서 뒤떨어지는, 낙오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저는 잘되실 거라고 전제하고 나중에 잘되시면, 장관이 되시면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통상협상이 한창 중인데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습니다만 비관세장벽 중에서 미국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생각보

다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EU에서는 지금 한발 물러서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개정안 등이, 우리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아니라고 아마 우리 정부 측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궁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 자체에 대한 규제 자체를 굉장히 과도한 규제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국내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독과점 이슈, 공정거래 이슈,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압력은 EU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도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이 이슈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이슈는 아니고 다른 다양한 이슈들과 같이 지금 테이블 위에서 한창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예측은 못 하겠는데, 우리 협상팀의 궁극적인 가치는 일단 우리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전체 형량을 해서 그런 원칙하에서 협상 중에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간사로서 항상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중언부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후보자님, 처음 지명 추천을 받으면서 기재부에 주로 계셨는데 산업부장관후보자로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적임자라고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두산에 근무 안 하셨으면 산업부장관후보로 지명받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박성민 위원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근무는 7년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여당 위원님들께서 근무 일자하고 두산이 성남시에 기부한 그 일자하고 겹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하고는 관계없다, 그것을 왜 자꾸 질의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건 본인 문제가 아니고 두산 문제입니다, 두산. 두산과 성남시의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이해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본인이 했다는 게 아니고 두산이 했고 본인이 두산의 사장으로 근무했

기 때문에 산업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지자체 후원금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지자체장을 8년 했습니다. 후원금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후원금 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원금에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그 지자체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라든지 이런 행정 업무와 관련돼서 이게 여러 가지 걸려 있으면 그 후원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PPT 하나 좀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성남FC에 두산에서 후원금을 제시할 당시에 왼쪽에 있는 게 원문입니다. 원문인데, 2014년 10월 31일 자로 두산건설에서 성남시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병원 부지를 용도변경해 주면 성남FC 후원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서류 봤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게 후원입니까? 이게 공식적인 후원입니까? 이게 다른 무슨 인천이나 대구에서 받은 후원금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명백히 보는 인사 내지는 재판에 대한 대가, 대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특사로 박용만 전 두산 회장을 내정하셨어요. 보도 봤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봤습니다.

○박성민 위원 두산이 이재명 정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특혜를 받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왔을 때는 박용만 회장님은 저희 그룹을 떠나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한 인연은 없는데요. 제가 특별하게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진행 중인 재판하고 관계가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것 아니면 지금 후보자도 두산에 근무 안 했으면 산업부 장관으로 절대 지명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것 보면. 기재부에서 25년 동안 근무했잖아요. 어떻게 산업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 생각에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민간에 와서 굳이 두산이 아니었어도 제 나름대로의 어떤 현장 경험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아무튼 그런 의혹이 있으니 더 잘 하시고 국민적 그런 의혹을 해소할 부분이 있으면 클리어하게 해소하시고 좀 더 철저하게 잘 단속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후보 지명은 언제 받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6월 29일에 받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명받고 곧바로 두산에 사표를 냈습니까? 현직으로 있을 때 지명받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지명받고 사표는 언제 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7월 4일 제출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수리는 언제 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7월 4일 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사표 수리가 7월 4일 날 사표 내자마자 바로 수리가 되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7월 4일 자로 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혹시 두산 사장실에서 산업부 직원들 업무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산업부 직원들이 두산 사장실에 한 명도 온 적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두산에너지빌리티에 계실 때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저도 후보자님하고 체코 프라하에서 만난 적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여러 가지 수고도 많이 하시고 하던데.

두산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분을 다 했고요.

○박성민 위원 얼마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거의 한 1만 주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한 6억 언저리 정도였던 걸로……

○박성민 위원 후보자 지명받고 매각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배우자도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배우자도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것도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래서 바로 매각은 했는데……

○박성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깊이 하시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민간기업에, 그것도 산업부가 두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회사에 근무하시면서 주식도 대량으로 가지고 계셨는데, 물론 처분은 했습니다마는 이해충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코바니 원전 아주 잘된 계약이고 꽤거라고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1GW짜리 2개를 26조, 그것은 아주 계약도 충분한, 금액도 충분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 정도면……

○박성민 위원 우리 국가에서 대신 대 준 비용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동안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두코바니 원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기업 하면서 그 정도 규모를 수주할 때 기여한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개별 기업 입장을 떠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6조의 돈이 나와서……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회사가 저가 수주해서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6조 정도 수주 내에서 두코바니 원전이 제대로 잘 지어지고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 데 또 뒷받침되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성민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도 K-원전이 유럽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국가의 큰 국부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오늘 출발이 1시간 한 일이십 분 늦었습니다. 늦은 관계로, 주질의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여야 간사님끼리 상의해서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 굳이 꼭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그러면 때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변경까지 가기는 좀 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후보자님, 대한민국도 원전 해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 세계 원전 해체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알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정동만 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 머릿속에 있는 숫자가 한 500빌리언 달러……

○정동만 위원 500조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정동만 위원 원전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전 해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시장이지만 해체 과정에서 실전 경험 쌓아서 세계시장에 진출해야 할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금 국내에 원전 해체 진행 역량을 갖춘 민간기업 있지요? 아까 김성원 위원 질문에 수행할 기업이 없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던데 잘못된 답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정동만 위원 원전 해체 시장이 열리면 사실상 몇몇 기업들이 이 시장을 독점할까 하고 걱정입니다. 후보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요, 아까 위원님들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원전 해체 시장은 국내 기업들은 굉장히 초기 수준이고 해외에 훨씬 더 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원전 해체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의 관련 기술과 의지를 가진 기업들 참여시켜서 원전 인근 지역 경기 활성화에 좋은 기회입니다. 후보자님 생각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 시장이나 여러 분야에서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동만 위원 지역기업들의 원전 해체사업 참여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만큼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산업부가 원전 해체 산업 발전의 방향을,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 원전 인접 주민 지원 확대 질문했는데,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께서 답변한 서면질문에 보면 재원이나 지원 대상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아마 그렇게 나갔을 것 같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정동만 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 답변을 들어 보니까 후보자 답변이 구두답변하고 달랐다, 그렇지요? 그때는 긍정적으로 확대해서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정동만 위원 그래서 후보자 답변의 신뢰도가 어떤 건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오전에 한 답변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고요.

○정동만 위원 답변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맞습니다. 아마 서면답변들은 이렇게……

○정동만 위원 후보자께서 원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희생이나 불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맞습니다.

○정동만 위원 원전이 중요하다면 원전 인접 주민의 삶 역시 더 중요하겠지요. 그렇지
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정동만 위원 원전보다 국민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맞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런 부분을 살피지 못한다면 정말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의 자격
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에너지부를 총괄하는 장관이면 당연히 챙기고 해
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정동만 위원 오늘 여기에서 분명하게 원전 인접 지역 주민들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
감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확대할 방침이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는 원전 해체 그리고 원전 해체 지역 주민들이
순조롭게 생활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여건들이 될 때 원전 전체 생태 주기가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전이나 원전 해체에 어떤 거부감이 있거나 수
용성이 낮아질 경우에는 그만큼 에너지산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위원 후보자님, 오늘 고생 많습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으로 계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허종식 위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스터빈을 만든 곳이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허종식 위원 그런데 지멘스나 이런 데 비하면 좀 떨어져요, 에너지 효율성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풍력이라든가 이런 데 터빈을 많이 써야 되는데 또 기존의 화력이라든가
이런 데도 바꾸려면 필요한데 이것 국산화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쪽에서 오셨
으니까 그쪽 사정을 다 잘 아실 거잖아요. 정부가 특정 기업을 지원해 주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터빈이라든가 이런 데는 앞서갈 수 있도록 산업부가 관심을 가져 주
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요새 폭염·폭우·극한기후 많이 들어 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허종식 위원 폭염, 우리는 지금 35도, 40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허종식 위원 폭염도 재난입니다.

지금 이것 일산에 있는 어느 마트 노동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더워서 숨진 곳입니다. 여기 숨진 곳이에요.

넘겨 보세요.

인천에 있는 어느 마트인데 폭염 속에 에어컨이 미가동돼서, 온도 보시면 아침인데 29.4도입니다. 낮에는 35도, 40도 올라가겠지요. 이곳은 소상공인들이 입점해 있는 곳인데 이런 정도로 폭염에 우리가 방치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넘겨 보세요.

학교입니다. 폭염 속,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학교인데 이 폭염에서도 운영비 예산이 부족해서 에어컨이 일시 가동돼서 초등학생들이 아주 힘들었다는 곳입니다. 이게 뉴스에 나온 곳이에요.

또 한번 넘겨 보세요.

이것 잘 아실 겁니다. 쪽방촌은 늘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곳에 도와달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에너지바우처가 24년에 1100억이 불용입니다. 전체 5700억 중에서 1100억 정도, 즉 20%가 불용이에요. 그런데 폭염이 재난이 돼서 어려운 곳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돈이 남는지, 왜 더 써야 되는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구를 해야 하는데 안 해요. 돈은 남고 국민은 고생하고.

한번 또 넘겨 보세요.

공공임대주택, 어려운 사람이 사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지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제외됐습니다. 즉 에어컨 같은 것을 설치했을 때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더 어려운 곳이 많다는 게 정부 핑계인데 더 어려운 곳에 지원하겠다는 바우처가 매년 1100억씩 남아 못 쓰고 있는데도 안 해 줘요.

지금은 폭염이 누가 보더라도 재난입니다, 재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정부 차원에서 정부 부처 간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잘 좀 대화를 해서 이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폭우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폭염도 이제는 재난에 준해서 해야 될 때가 됐다, 이 부분에 장관님으로 지명되시면 꼭 좀 정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다음 넘겨 보세요, 다시.

해상풍력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정부는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이렇게 늘리겠다, 18.3GW로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 발표입니다. 여기 예산이 128조 원이 들어갑니다. 1GW 당 7조 원 정도가 필요한데 PF 아무도 응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왜? 해상풍력 하나 만드는 데 최하 9년 걸립니다, 30개 정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안 줘. 은행에서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보니까……

넘겨 보세요. 팬썰입니다.

인천 앞바다가 NLL이 같이 있다 보니까 다 군 작전구역입니다. 또 어민들의 어로구역입니다. 여기에 송전선로까지 중첩돼 있어서 옆친 데 뒤편 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체가 서로 협의하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 해.

군 작전성 검토도 군에서 작년 11월까지 ‘방침이나 원칙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도 안 합니다. 어민들은 그래도 그나마 협의 잘하면 어로구역에서 풍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들이 다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장관님으로 임명되면 정부 간 좀 협의를 잘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정말 하나하나가 다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딱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PF 때문에 은행 찾아다니면서 했던 기억이 생생하고요. 군 작전성 검토 때문에 참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자마자 만드는 게, 프로젝트별 딱 지정을 하나씩 해서 책임지고 하나씩 맡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아 위원** 장관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탈석탄을 완료하였고 우리나라는 올해 12월 말부터 태안 1·2호기를 시작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본격적인 폐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동아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산업부 차원의 노동자 재고용 대책, 지역경제 회복방안, 전환 인프라 마련 등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지역 분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행정 추진이 반복될 경우에 숙련된 노동자들은 실업자로 아마 전락할 것이고 과거 강원도 폐광지역과 같이 지역 공동화 현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히 큼니다. 실제로 과거 정부는 석탄산업 쇠퇴로 어려움을 겪던 강원도 폐광지역 지원을 위해 강원랜드를 설립하기는 했지만 카지노 중심의 단편적 접근으로 폐광지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아쉬운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현재 국회에서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을 대응하기 위한 노동자 고용안정과 지역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기금 조성, 폐지지역 지원 기부금 계획 수립, 창업 촉진, 대체산업 기업 이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후보자님께서서는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석탄을 폐광하는 이슈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그 부분이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대책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 있어서 노동계 참여 거버넌스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탄중위 1기에서는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동자 대표로 참여

했고 공정전환 분과위원장도 운영되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해체되고 분과위원회도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전력노동자로 구성된 전력연맹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대신에 간접적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다음, 산업부 조직재편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글로벌 4대 첨단제조업 강국 도약을 목표로 혁신선도형 첨단산업 구조로의 대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동아 위원 이래서 산업부는 전통 제조업 소재·부품·장비, 첨단산업 일부 중소기업 지원까지 현재까지 너무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분야를 포괄할 게 아니라 첨단산업 전략 부서로서 정책적 집중과 혁신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맞습니다.

○김동아 위원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동아 위원 산업부가 첨단산업 전략 부서로서 정책적 집중과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러면 조직과 기능을 좀 바꾸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패션·뷰티·주얼리 산업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축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업부 내에 생활용품 산업군에 묶여 독자적인, 독립적인 전략 수립과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주얼리 산업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세공·디자인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 전략 부재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매년 해외 명품 브랜드 매출로 막대한 자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1조 8000억 이상이나 되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프랑스 명품 주얼리·패션 브랜드 에르메스의 시가총액이 현재 후보자님이 계시던 두산에너지빌리티의 10배 이상이나 됩니다.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회는 지금 산업부가 첨단산업 위주로 나가는 전략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부로 이관한 다음에 중소기업부에서 육성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인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직원들로부터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참 공감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패션 같은 경우는 기능성 소재라든지 다양한 밸류체인에서 엮여지는 부분도 있고,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이 분야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해 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동아 위원** 아니, 저는 패션의 첨단소재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첨단 전략 부서로서 산업부에서 R&D도 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패션업계나 뷰티업계, 주얼리업계 이런 업계 전반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산업부가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정부조직의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동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선산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이 지금 1조 엔 들여서 국립조선소 짓는다고 발표했다고 오전에 했었는데 또 민간 조선소도 1위 조선소하고 2위 조선소가 지금 합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동안 조선이 한물갔다고 해서 한국에 거의 다, 그냥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미 해군의 함정 MRO뿐만 아니라 미 군함 그다음에 방산시장에 뛰어들겠다, 플러스 상선시장도 지금 한 13% 정도 점유하는데 20% 정도 점유하겠다 이런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그러면 지금 어떻느냐, 세계 최대 조선기업이 중국선박그룹입니다. CSSC인데 여기에도 지금 자회사 두 곳이 합병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마 심사가 지난 7월 5일 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합병되면 우리 HD현대중공업보다 3배 이상 됩니다, 자산 규모가. 약 7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우리 조선산업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서면질의에서 후보자님께 우리 조선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하자라고 하니까 후보자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서면답변이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 기억에 그 부분들까지……

○**서일준 위원** ‘정부가 임의로 사전에 특정 업종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답변이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선업이 단순히 그냥 제조업의 하나가 아니다, 안보하고 직결이 되어 있고 미국하고 관세협상에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도 지금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지렛대로 조선산업을 쓰겠다라고 하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로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관세협상에 조선산업을 지렛대로 쓰겠다, 우리하고 일본이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산업에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기술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각자도생해라, 기업에서 다 알아서 해라,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서면이 그렇게 나왔……

○**서일준 위원**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서면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는 오전에 저희 산업정책에 대해서 기업과 정부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서일준 위원** 아마 실무자들이 후보자님한테 보고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꼭 챙겨서…… 이게 정말 안보뿐만 아니라 관세협상 지렛대 등등 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이 조선산업입니다. 그동안 한물갔다 해 가지고 이제 중국한테 다 넘어가는 것 아닌가 했지만 지금 미국에서 중국 견제한다고 중국에서 건조한 배는 미 항구에 입항을 하면 페널티를 100만 불에서 150만 불 부과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선주사들이 중국에 발주를 안 하고 거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발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상선의 문제가 아니고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안보하고 관련된 문제고 대미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니까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살펴보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후보자님, 꼭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R&D 분야입니다. R&D 분야에 보면 그동안 효자 선종이 LNG선이었는데 LNG선 이것 아무리 수출해 봐야 원천기술이 최고 중요한 게 화물창 기술인데 이게 프랑스 GTT사에 로열티 5% 주고 있습니다. 이걸 조선 3사하고 산업부하고 가스공사에서 국산 화물창 기술 개발한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다가……

후보자님이 한번 챙겨 보십시오. 지금 KOGAS하고 조선소하고 아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으니까 전부 배임이다 뭐다 해 가지고 혹시 내가 거기에 해당될까 싶어서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로열티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5조 이상 나갔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겁니다.

이것은 3차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탄소중립을 위한 NDC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CFE,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점 추진 사업에서 CCUS,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소홀하게 취급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석유화학, 철강 이 부분은 그런 전통산업에 대해서는 탄소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업종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CCUS 이 부분에 대한 기술 R&D 분야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영역이라는 문제의식이거든요.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도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카본 캡처(Carbon Capture)와 관련해 가지고 충남에 있는 현장에도 제가 직접 가 봤었습니다. 가 봤었는데, 이게 지금은 경제성이나 기술개발 부분이 약해서 실질적인 상업화가 안 되지만 장기적인 기술 R&D를 통해 가지고 상업화를 해내야 저희가 석유화학이나 철강 쪽의 산업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어서 그 분야를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맞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2030년 NDC 감축목표 중에서 CCUS를 통한 감축목표가 전체의 한 10% 정도 되거든요. 사실 10%라고 하면 상당한 비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금 현재의 관심도는 상당히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산업부에서는 포집·수송·저장 관련된 11개의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서 중점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의 국회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강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인상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CCU, 그러니까 탄소 포집·활용하는 것과 CCS, 탄소 포집·저장하는 그 소관이 과기부와 산업부로 나뉘지거든요. 이것에 대한 R&D의 서로 연계된 부분 또 아까 지방 균형 말씀하셨을 때도 후보자께서는 어떤 분절적인 것보다는 통합과 연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지적의 말씀도 계셨는데 바로 이 부분이 그런 대표적인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말씀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지금 현재 CCU 부분에서는 사실 R&D 부분이 굉장히, 기초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분야여 가지고 현재 과기부가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고, CCS 같은 경우는 산업부 소관인데 CCUS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뉘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개가, CCU 분야하고 CCS 분야가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처 간의 일종의 영역 싸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두 부처가 서로 유사한, CC까지는 굉장히 공통으로 가져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나뉘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가 유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업화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챙겨서 보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 촉구드리고요.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2030년 목표 대비 현재 추진 상황이 1.8%, 사실 진행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저조한 상황인데 풍력터빈 KS인증 기관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 기관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5년간 15건이 KS인증을 받았는데 평균 심사 시간이 1000일이 넘어요. 지금 해야 될 영역은 많고 그런데 심사 기간은 길고 기관은 하나이고, 해답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도 한번 그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질문하신 그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영광에서 터빈 실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정말 속이 타들어 갔습니다. 이 하나 해서 도는…… 그 어려운 시기에 했는데 인증이 안 나오니까 계속 거기서 1년 이상을 그냥 들고만 있는, 현장에서 목도를 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보면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실증·인증 기간이든지 그런 기간들이 최대한 단축돼서 이게 단축이 되어야 비로소, 물론 안정성이나 품질은 보증은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 풍력산업이 제 궤도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후보자님, 11차 전기본 공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전기본에 대형원전 2기, SMR 1기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이 11차가 2038년까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대형원전 건설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한 10년 내외 정도 걸립니다.

○이종배 위원 10년 내외 그렇게 하지만 입지 선정까지 해서 지금 빨리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절차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바로 챙겨 봐야지 될 것이고.

12차 전기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아직은 시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12차 전기본이 올 말까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청문 준비 과정에서는……

○이종배 위원 11차가 국회에 늦게 보고해 가지고 그렇게 좀 늦어졌다고 생각해서 12차가 저절로 늦어집니까? 2년 단위예요, 2년 단위.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 챙겨 보셔야 돼요, 나중에 장관 되시면.

2030년까지 원전 수명에 달하는, 원전 수명이 되는 게 한 10기 되는데 수명 연장에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안정성을 전제로 해서 계속운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안정성 안 되면 수명 연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동의하신다고요.

10년을 20년까지, 미국과 같이 20년 주기로 이렇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 검토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잘 챙겨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SMR, 28년도에 표준설계인가를 받는데 이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뒤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이 SMR 세계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이것도 빨리 촉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동의합니다.

○이종배 위원 원전 수출도 이제 체코의 두코바니 하고 곧 이어서 5년 내로 하면 우리

가 우선협상권이 있잖아요, 테플린에.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그것도 그렇고 EU 국가가 원전 새로 다시 하는 나라들 많잖아요. 그다음에 또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트럼프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200기를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전 수출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신재생 확대하는 거 저는 찬성하고요. 다만 자재 국산화 문제 이것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손 놓고 있다가 다 뺏겼잖아요.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태양광·풍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제가 수소경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데 수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일본 가 보니까 일본은 굉장히 발 빠르게 나가고 있던데 우리가 일본보다도 뒤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인데 좀 관심을 가져야지 될 것 같아요. 미래에너지 아니겠어요, 수소가?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매우 동의합니다.

○이종배 위원 요즘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RE100에서 CFE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이니셔티브를 좀 제안하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하고 같이…… 이게 또 추세거든요. 원전도 포함되고 수소도 포함되고 이래서 같이 CFE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출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 같은 게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기업체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 수출, 미국 관세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것인데 빨리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지 된다. 8월 1일까지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겠지요? 대통령께서도 한미동맹 중요성 인식하신다 그랬는데 좀 더 우리가 친미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야 될 것 아닌가 생각돼요.

중국 가고 하는 전승절 행사 같은 것도 좀 과감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참석을 안 한다 이런다든지 저작권 환수 문제도 이렇게 자꾸 나와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관세협상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도 정부 전체에서 좀 따져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되고요.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외교 당국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농산물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데, 저는 오늘도 전화를 받은 게 우리 지역이 사과 많이 내는데 사과까지 수입하겠다는 이랬다는데 농민들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런 걸 잘 검토해서 대응을 해야지 그냥 미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 농산물 같은 것 다 개방해 가지고는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언 위원** 후보자님, 아까 제가 질의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좀 더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문회 자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상언 위원** 후보자님의 경력을 보면 공직 경력하고 민간 경력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셨던 일을 제가 좀 봤어요. 보니까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하셨고 경제분석과장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니까 대통령비서실, 세계은행에도 근무하셨네요. 그리고 표창도 한 두 번 받으셨어요. 민간 경력을 보면 두산그룹 계열사 임원 등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체코 원전 사업 수주 같은 그런 일들을 하셨지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상언 위원** 경제관료 그리고 기업 경영인을 모두 경험한 이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력인데요. 이 점은 후보자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국민이 우려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이 오랜 공직 경험에서 체득한 공직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민간기업에서의 경험이 공직자의 자세를 유지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공직자의 자세는 일단 공정성과 책임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헌법 7조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가치에 따라서 공직자로서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간에 가서도 민간기업 활동이기는 하지만 결국 수출 전선에 나서면서 그게 곧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공직자 같은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박상언 위원** 좋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볼게요.

후보자의 서면답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업인 출신 장관으로서 기업에서 일한 경험을 잘 살리겠다’. 기억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상언 위원** 그리고 후보자는 ‘두산에너지빌리티 재직 당시에 탐코리아 일원으로 원전 수출에 기여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상언 위원** 후보자님, 그런데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고 한 기업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산업은 전혀 다른 겁니다.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업에서 체득한 어떤 경험을 살리려고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조금 전에 해상풍력 하면서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규제라든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들이 대부분 실제로 공감을 하고 있던 부분들이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저희 정책과제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현장 경험을 살려 보려고, 기업 했던 경험들을 살려 볼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탐코리아 하면서 경험은, 제 경험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외시장, 어려운 시장을 뚫어나갈 수 있는지 그런 좋은 사례처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공기업들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 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갖지 못하는 경쟁력도 갖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체코 원전 수주의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에서의 어려움, 그 분야를 기업 혼자서 각 기업들이 각개격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뚫 수 있도록 그런 수출 같은 부분들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상언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추상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요. 나중에 장관으로 취임하시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더 세분화해서야 되고 보다 구체적으로 하시지 않으면 장관직 수행하기가 좀 어려우셔요.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후보자께서 산업부 5대 과제로 지목하신 것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수출경쟁력 확보, 신성장동력 육성, 주력산업 체질 개선, 산업 균형발전, 친환경에너지 전환 이런 다섯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과거의 장관들의 업적도 있을 테고 과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의 업적과 과오를 비교해서 하나라도 뭘 하겠다, 후보자의 정책 철학이 무엇인지 핵심 비전이 무엇인지, 25년간의 공직 경험과 7년간의 경험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녹여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돌파해 내는 데 제 최선을 다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보고서나 발언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보고 싶습니다.

○**곽상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원 위원** 후보자님, 좀 빨리빨리 진행하시자고요.

2023년에 아파트 매입할 당시에 소유주와의 관계 물었더니 ‘특별한 관계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그 전 소유주가 누군지 모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전혀 모릅니다.

○**김성원 위원** 전혀 몰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전 소유주가 전 두산건설 부회장의 배우자인데 모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구선희 씨라고 두산건설 부회장님의 부인이신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김성원 위원 여기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인데 이 확률을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이 확률과 장관 이렇게 낙점될 확률하고 같아요? 아니, 참……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는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진짜 이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데 저는……

○김성원 위원 제가 지금 더 놀랐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데가 9510세대인데 지금 산데가 고 박용훈 전 두산건설 부회장의 배우자분 것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몰랐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아니, 진짜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김성원 위원 참 나……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아니, 정말 저도 황당한데요.

○김성원 위원 장관도 진짜 하늘에서 떨어지고 아파트도 하늘에서 떨어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갑자기 매수자 이야기를 하시길래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했는데 전혀, 전혀 몰랐습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지금……

그러면 다음 질문 할게요.

정부에서 지금 기후에너지부 신설하려고 해요. 지금 산자부에서 에너지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관 입장에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조직개편 이슈는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슈여서……

○김성원 위원 아니, 장관후보자의 입장으로서는 찬성이예요, 반대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반대라고 얘기 들어도 되겠지요? 이해해도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

○김성원 위원 당연히 반대라고 하셔야지요,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하여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어허, 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그 자리에 현대건설 사장이 앉아 있다고 쳐 봐요. 그리고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으로 지금 재직 시에 있다고 봤을 때 당연히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후보자께서 한 답변에서 ‘그런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안 되지요. 그건 범죄예요. 하지만 지금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으로서 재직했던 분이 장관으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해충돌이란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럴 소지는 있을 수가 있는데……

○**김성원 위원** 아니, 만약에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이고 현대건설 사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 앞으로 수주하는 데 큰일 났다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 지금 그 자리에, 후보자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두산에도 악영향이고 산업부에도 악영향이에요. 지금 그러면 산업부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계속해서 에이스들 인력 유출되고 있는데 ‘나도 그러면 빨리 민간기업 가 가지고 부사장 대우받고 사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나중에는 차관이나 장관으로 와야지’. 조직의 기강이 서겠습니까? 시스템이 서겠습니까? 지금 나쁜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후보자가 그렇게 국무위원, 산자부장관직을 덜컥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박지원 회장하고 통화했을 때 잘하라고 격려했다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참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해충돌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이 없이 양쪽에서 다 그렇게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위원님의 그런 우려와 걱정이 되지 않도록……

○**김성원 위원** 제 우려와 걱정이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제가 특별하게 큰 우려 갖고 있고 큰 걱정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이 정도는 최소한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보충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주질의 이후에 여당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여당 간사님께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통제하시는 건 아니지 싶은데 발언 요지를 보면 ‘삼갔으면 좋겠다’, ‘적절치 않다’, ‘관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관 후보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은 삼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상관없다는 이 말씀에도 동의할 수 없지만 설혹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바로 평가하고 또 바로 대응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대표로 몸담았던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두산건설의 최대주주라는 점을 제가 주질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지 않았던 시절에 그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수사도 하고 기소도 되고 그리고 재판받는 기간 중에 두산에너지빌리티 대표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사건의 실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후보자가 장관직에 임명되면 적절하다고 보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 여당 위원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우리도 모든 것들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겠습니까? 상호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 그렇게 시작하면 회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다 생각하는데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 의견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마다 평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저도 그러면 해야 되나요?

○위원장 이철규 그만요. 자꾸 그러시면……

○김원이 위원 안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안 하겠는 게 아니고 내가 한 질의에 의사진행발언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위원장 이철규 자,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후보자님, 여러 여야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또 모두발언 속에서 국내 해상풍력산업 육성화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그리고 또 외국산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았다라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아……

○구자근 위원 그건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어떤 지도인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해상풍력단지 현황입니다. 발전기하고 풍황계가 있는 곳입니다.

후보자님, 올해 4월 달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 일어난 건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필수 서비스가 완전 마비될 정도로 의료나 교통이나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비돼서 실질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부분에서도 에너지안보가 심각하게 인식되는 데 중요한, 민감하게 받아들여졌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에너지안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지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후보자님께서 같이 동의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해상풍력 안보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중국산 기자재의 안보 위협에 대한 문제점 등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여러 나라에서 지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라도 더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로서는. 풍력의 핵심 장치인 터빈, 그러니까 태양광 인버터 킬 스위치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원격제어의 위험도 있고 또 부품 공급을 차단하면 전력망이 마비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재생에너지 속에서.

혹시 풍력타워에 LDLS라고 장치가 있는 것 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그게 민간 항공기 부분이나 오면 빛이나 뭐 이렇게 조명을 켜서 위험을 감지시켜 주고 그게 군사 항공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해저케이블까지 진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영공·영해가 24시간, 어떻게 보면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 이 부품 속에서 감시체계에 소홀할 수 있다,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 탄소 중립 이런 방향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이런 에너지안보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해상풍력 입찰 프로젝트를 두고, 혹시 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남 영광 앞바다의 한빛해상풍력 입찰 지원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보 위협의 사례들 여러 곳에서 제기되는 업체들입니다.

낙월해상풍력 입찰에 선정됐는데 중국산 기자재 사용 논란이 있고 지금 검찰로부터 수사도 받고 있고, 중국 선박의 불법 기항 문제로 입건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산 기자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간접적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저케이블이나 해상이나 그게 우리 선박도 문제지만 잠수함이나 여러 부분들에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 대안으로 실질적으로는 안보에 대한 부분들을 산업부에서 안보 점수를 조금 상향해서 개선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혹시 장관님이 되시면 외국산 핵심 부품들 관련 부분과 이런 안보 관련 부분들을 점점을 해서 관심 있게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그리고 또 혹시 장관직에 가시면 지금 영광 부분, 낙월해상풍력 부분 입찰 관련해서 저렇게 중국산 업체가 선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주의 깊게, 관심 깊게 좀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지금 낙월해상풍력의 주요 공급사들이, 터빈하고 해저케이블이

전부 다 중국 업체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알고 계시지요? 기재부에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실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국감도 포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관심 깊게 한번 보겠으니까 혹시라도 장관 되시면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관심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감사합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인사말씀에도 공급과잉 산업의 신속한 사업 재편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어떠한 산업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산업정책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업 재편이나 구조조정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장철민 위원 혹시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기재부에 있으면서 조선업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었는데 와서 느꼈던 게 우리가 석유화학이나 철강 분야의 산업구조 개편을 실기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겠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장철민 위원 그런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미 실기했지요. 석유화학은 신속한 사업 재편이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졌지요,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거의 놓치다시피 했고.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사업 재편이나 구조조정 그리고 이런 어떤 기업들의 선택과 집중의 산업, 일종의 리밸런싱이라고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단계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IMF나 이런 이후에는 굉장히 터프한 방식의 구조조정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래서 10년 전 정도에 원샷법이라고 하는 공급과잉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사업 재편에 관한 기활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게 이제 거의 한 10년 되어 가는데, 그러면서 뭔가 정부가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거의 없어졌다시피 하고 일부 기업들이 이 기활법의 틀에서 일부 사업 재편을 시도해 왔는데 그마저도 사실 오류년 전부터는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적으로 사업 재편이나 선제적으로 일종의 거친 방식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기 이전에 무언가 할 수 있는 톨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졌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맞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는 워낙 경기도 어렵고 대기업들도 사업 재편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리밸런싱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중국 사업 재편을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LG나 SK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 사업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여기로 모이고, 현차나 다른 어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사업 재편을, 그래도 리밸런싱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중요한 산업들이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아주 막 인위적으로 세계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산업부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서 이 기활법, 원샷법이 하는 역할도 저는 확실하게 좀 더 재검할 필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한 10년 되기도 했고 실제로 지금 많이 활용이 안 되기도 하고 특히나 저희가 처음에 워낙 좀 보수적으로 입법을 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 산자위에서 논의할 때, 저도 그때 논의할 때 참여를 스태프로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잘 작동하고…… 왜냐하면 성과는 확실한데 한계도 확실한 법이기는 하거든요, 기활법. 그래서 이 법이 더 잘 작동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하면 이걸 정말 구조조정을 잘할 수 있을까,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래서 사업 재편이나 구조조정이나 이런 산업 간 이동 부분도 이런 어떤 3단계 구조 같은 것들을 잡아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키우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거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아마 전반적인 검토와 석유화학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실 테니까 좀 그런 아이디어도 구체화해 나가 보셨으면 하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첨단산업 부분에 대한 투자, 특히나 저희가 반도체 특별법 등등 이야기하면서 또 이차전지, 배터리 쪽은 워낙 중국 쪽의, 특히 CATL이나 이런 데의 마켓셰어가 최근 5년간 너무 어마무시하게 성장하고 저희는 너무 축소되고 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반도체, 배터리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 얘기들은 많이 이루어지는데 미래차에 대해서는 아까 후보자님 인사말씀에 등장은 하기는 하지만 불안해하기도 하세요, 미래차 쪽 지원은 오히려 좀 등한시되는 것이 아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오히려 배터리 쪽이 겪었던 위기를 미래차가 똑같이 겪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위기감이 미래차 분야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 실제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첨단산업 분야 지원이…… 물론 반도체, 배터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항이

기는 하지만 미래차 쪽도 뭔가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후보자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앞뒤 내용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 대부분이 저하고 생각이 같은 이야기고요. 특히 기활법 같은 경우는 한 10년이 지나면서 우리 산업구조가 바뀌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못하고, 특히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 하나하나가 좀 구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활법이 우리 기업들의 구조 개편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가 보고 싶은 생각이구요.

반도체, 배터리에 이어서 미래차 분야도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핵심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미래차 분야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제도를 만드는 데 같이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후보자님, 유럽연합에서 탄소발자국 등 환경규제 도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실사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트럼프 위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몇 달 논의를 제대로 안 하고 좀 놓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후보자님께 잠시 질문드리겠는데요.

특히 공급망 실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도 이미 지침이 만들어졌고 OECD도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OECD 회원국이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고 그다음에 IPEF라고 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도 공급망 협정을 통해서 지역 내의 공급망에서 노동인권 감시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탄소국경제도인 CBAM보다 더 강력한 DPP가 도입되고 있는데 이 DPP에서도 ILO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반드시 거기에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라든지 인권침해,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 이런 것까지도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응만 하는 것이 맞는가? 그 대응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RE100도 해야 되고 다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런 제도를 도입 안 해도 되냐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성무 위원 특단의 법이나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에는 우리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들을 잘 들어서 한번 추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미래자동차 이야기를,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은 후보자님께서서는 에너지기업에 근무를 하셨고 또 공직에 계셨는데 이 자동차 부분은 공직에 계실 때 맡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자동차산업이 워낙 중요해서 거듭거듭 질문을 드립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24년에 법이 통과됐고요 시행이 됐는데 실제로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전략회의 및 협의체, 실태조사 이런 게 지금 전혀 구축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것을 기본계획을 짜고 시행을 제대로 해 나가야 되는데 장관후보자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도 24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와 같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고 들어서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이번에 보고받는 데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도 같이 한번 꼭 살펴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리고 원래는 이번 25년 3분기, 지금 7월 달이니까 3분기에 들었잖아요. 이때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뭐 하겠다, 발표하겠다 이렇게 산자부가 했는데 지금 정권 교체도 있었고 장관후보자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게 실제 이번 3분기 내에 발표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우리가 예측이 안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빠른 시일 내에 저도, 법 시행이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조차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파악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허성무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업종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체계가 있고 그 위에 중견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개 업종에 따라서 매출로 보면 한 400억에서 1500억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대기업군이 있는데, 제가 수많은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중견기업으로 빨리 육성하고 또 이 중견기업들이 대기업군으로 들어갈 만큼 커지기를 바라고 지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지금 제도는 중견기업으로 올라가게 되면 중소기업보다 많은 혜택이 사라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성장억제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중소기업이 서로 중견기업이 되고 싶어 하고 중견기업이 되면 또 더 크게 성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좀 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그 한도를 좀 높여 줘서, 차라리 중소기업의 한도를 높여 주든지 아니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좀 만들든지. 그렇게 안 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히려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기업 쪼개기를 해요, 법인 쪼개기를. 현장에서는 그런 편법이 쓰인다는 거지요. 그것 옳지 않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도 우리 창원 기업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안줏거리 비슷하게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 중견기업이 되느냐, 중소기업에 있으면 다양한 혜택도 받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 성장사다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중소기업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그런 인센티브 구조인 것 같아 가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에 유념해서 한번 짜 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현장에 계시다 오신 후보자님이기 때문에 기대가 큼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중하고 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방대한 그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한시될 수도 있다 해서 제가 이 질문을 이어 가는 것입니다.

석유공사가 올해 2월 2일에 언론을 통해서 추가 유망성 평가 결과 마귀상어 등 14개 유망구조를 확인했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 뒤인 2월 6일에 산업부2차관은 대왕고래의 경제성이 부족했다고 시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바로 1차 시추 실패를 회식하기 위한 전략적 유출이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실제 석유공사에서는 자체감사 결과 직원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를 한번 보시면, 드러났고요. 석유공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첨부 문서를 별도로 비공개 설정을 하지 않은 채 첨부 문서 전체를 공개 대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공개가 되었다. 그래서 비공개 설정을 하지 않아 기밀이 유출된 사례는 이번 사례 외에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가 시추사업을 계속하고 싶고 또 해야 합니다. 우리 자원 확보를 위해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자화자찬을 했던 대왕고래가 실패하니까 14개의 새로운 유망구조를 내세워서 계속 시추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던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작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번 지적했었고 했습니다만 도덕적해이가 되는 부분이 여러 부분 지적이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셔야 할 거라고 보는데요. 산업부는 그동안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줄곧 방어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장차관이 직

접 나서서 발표를 하거나 의혹 해명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해 왔고요.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국정브리핑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제는 산업부가 주무 부처로서 석유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귀상어 유망구조 문건 관련해서도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4명을 징계했는데 실제 기안을 했던 실무자만 1개월 감봉 처리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그 위의 관리 감독을 했었던, 해야 했던 그 사람들은 경고 정도의 처분으로 그쳤습니다.

새로운 리더십하에서는 산업부가 석유공사의 샌드백이 아닌 회초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에 임명이 되신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되고 도덕적해이가 시정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리고 후보님께서 청문회 준비를 하시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산업부와 관련된 공약 살펴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이 공약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4대 첨단제조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구조로의 대전환, 제약·바이오 국가 투자와 책임성 강화, 반도체·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장관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다 할 수도 없고 또 다 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분야들 중에서 적어도 장관님께서 이것만큼은 내가 역점을 두고 성과로서 제대로 평가받겠다 하는 분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대부분 다 중요한 과제인 건 맞는데요. 일단 우선은 탄소중립 산업전환 부분, 친환경 재생에너지 RE100,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그 밑에 햇빛마을, 햇빛연금, 에너지 자립 실현, 이 에너지 전체 분야를 한데 묶어서 한번 같이 보고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요.

○**권향엽 위원** 그게 기후에너지부 신설하면 산업부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소관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소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같은 내용들은 산업부가 같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분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업부장관으로 임명을 받으셨지만 지금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관한, 오늘 지금 여러 차례 분리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고 국가가 어떻게 가는 것이, 부처가 하나 신설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장관후보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전에 기후에너지부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원전 업계에서도 일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대한

민국이 가야 될 길하고 이재명 정부의 기초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OECD 잠재성장률이 우리가 1%대로 떨어졌고 내년에는 1.88%, OECD가 1.88%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국가경쟁력도 일곱 단계나 떨어진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에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초격차 기술이 몇 개냐 했는데 이제는 딥시크부터 해서 중국 화웨이나 이런 걸 보면 이미 중국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중국도 앞으로 나가고 있고 미국도 역시 감세해 주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살 거냐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때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AI 100조를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그 AI 100조를 위해서는 정말 싸고 안정적인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쪽 내놓는 여러 가지 공약에 따르면 과연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느냐. 유럽도, 덴마크도 40년 만에 탈원전에서 탈출하고 벨기에에는 22년 만에 또 독일도 55% 이상이 원전을 다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오히려 감원전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탈원전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SMR 어떻게 하실 겁니까, SMR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일단 제가 아는 한 감원전은 이번 대선에서는 언급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이번에 후보자 토론회 할 때랑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중요한데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걱정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대한민국이 20년 저성장 늪에 빠진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주 52시간 얘기합니다. 저희가 반도체 특별법, 작년에 계속 한 이야기가 3년만 한시적으로 R&D에 관여하는 사람들만 주 52시간 예외하자는 것도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 했는데요. 자, 주 52시간 예외 규정 없이 R&D, 우리가 정말 다시 R&D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도체 분야 인력들의 유연한 근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와……

○나경원 위원 이것 가서 좀 강조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나경원 위원 이것 이렇게 가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이번에 상법 개정안 통과되고 코스피 5000 만드려니까 자사주 소각해라, 배당 성향 높여라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일부 또 그렇게 가야 될 방향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밸류업이 아니라 주가만 띄우는 결과가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기업이 R&D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줄어드는 것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반도체 관련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나경원 위원 제가 지금 상법 개정안하고 쪽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을 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런 이유로 일단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상법 관련 이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경영제도 우려하는 부분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기업이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상법 개정안에 지금 추가로 또 개정하겠다고 하고 자사주도 소각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기업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은 R&D 투자를 늘려야 되고 정말 노동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되고 인력 유출도 막아야 되는데 이런 게 전체적으로 틀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를 말씀드리고.

통상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 한미동맹을 좀 더 굳건하게 해야지, 뭐 믿을 만해야지 미국이 좀 우리하고 얘기가 될 텐데 지금 이것도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오늘 피력하시는 여러 가지 철학을 보면 장관후보자의 철학대로 하면 잘될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나 그동안의 기조를 보면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소신 있게 가서 이 대한민국 산업정책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다른 방향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서 혼란스러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는 지금 우리 산자부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늘리는 장애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호남의 전력계통 문제라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호남 지역의 계통 문제를 ‘송전선로 조기 건설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송전선로를 개설하고 송전탑을 많이 세워서 호남 지역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과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방식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많다는 점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송재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균형발전과 또 에너지 전환, 이 두 가지 핵심 국가적 과제의 주무 부처가 바로 산자부입니다. 산자부가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서 대량 전력 수요처를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더……

2개의 정책과제를 다 주무 부처로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수단도 어떤 식으로든 만들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국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시도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아마 서면답변에 그렇게 나간 것까지 미쳐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일종의 지산지소라고 할 수 있듯이 해당 지역이 생산한 걸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 RE100 산단도 있는 걸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기업 이전도 충분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기업들이 그와 같은 지역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부는 수도권인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미 만들어서 수십조에 달하는 재정지원 정책을 마련했고 이미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데 수도권에 입주한 산업 클러스터에 이런 정도를 지원한다면, 만약에 지역에 입지할 산단에 정말로 의미 있는 기업이 이전하려면 용인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투자와 지원 이런 구상들이 마련되고 실행이 돼야 될 텐데 실제로 기업 책임자도 하셨던 후보자께서 기업 책임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정책들, 어떤 수준의 정책이 좀 있어야지 같 만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대기업들이나 우리 주요 기업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규제 이슈입니다. 기업들이 정말 마음 놓고 그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자녀들의 교육 이슈, 병원 이슈, 문화시설 이슈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됐을 때 가능한 이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맞습니다. 그런 게 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는 구상으로는 나오는데 실제 실행하는 단계에서 지방정부의 힘으로 그것을 다 진행하려고 했을 때는 계속 좌초되고 결국은 완성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국가적 과제로 그 부분이 확실히 책임 있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좀 차원이 다른 솔루션 중의 하나이긴 하겠습니까마는 지역발전과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실현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 중의 하나인 햇빛연금, 바람연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기후위기가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이중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의 어떤 연금을 주기 위해서 사업의 수익 구조는 대체로 REC(공급인증서) 가중치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도의 근간인 RPS 제도 자체가 지금 2027년 일몰 예정으로 돼 있어서 REC도 계속 축소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REC 축소라는 것하고 주민참여형 에너지 생산 확대라고 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정책 방향이라서 다른 솔루션을 찾아내야 될 텐데 산업부 정책의 어떤 전략적 일관성이 부재한 것처럼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해법들을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지금 답변을 드리기에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햇빛연금이나 바람연금은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관련 수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한 일거

삼득 정도 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불가피하게 RPS에 따른 REC를 가지고 하지만 이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꼭 진지하게 고민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지혜 위원** 얼마나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40% 정도…… 2018년 대비 40……

○**박지혜 위원** 피크로 얘기되는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되지요. 지금 남은 시간이 사실상 4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여러 차례 대통령님의 공약에 대해서 의견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저는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우리가 에너지전환을 꼭 이루어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또 소득 수준도 향상시키고 균형발전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또 에너지고속도로와 관련된 공약인데요.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조직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후에너지부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부 관련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을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어쨌든 정책적인 그런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 부분은 유기적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산업정책을 하시면서 사실 또 어떻게 어떤 역할을 맡으실지 모르겠지만 부처 개편과 관련해서 산업과 에너지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도 대통령의 공약을 분명히 이해하고 계시고 그대로 잘 실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하게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통상 문제가 있을 텐데요. 미국과의 관세협상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제시해야 하는 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후보자님 생각하고 계신 카드가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지금 통상 관련해서는 다양한 카드들이 논의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 입장이실 수도 있다고 저도 질문을 준비하며 생각을 했는데요. 언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된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원유가 있잖아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의 72%는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수입을 좀 늘려서 다변화를 꾀하긴 했는데 아직도 72%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원유 수급에도,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도 큰 영향

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미국산 원유 확대 도입 정도는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지혜 위원 그리고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다큐멘터리인데, 인사청문 준비하시느라 못 보셨을 수 있는데 ‘인재전쟁’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EBS에서 했던……

○박지혜 위원 제가 채널은 잘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다큐멘터리이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산업부도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 인력 부족에서 우수 인재가 지금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 국가이고, 사실 그 인재들이 어디에 가 있나 보면 해외에서 고급 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한국 인재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AI 분야를 보면,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서 인구 1만 명당 순유입 인력이 -0.36명, 그러니까 해외로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R&D 예산 삭감 같은 것이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특히 이 ‘인재전쟁’에도 보면 중국의 우수한 인재를 해외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그리고 중국 인재들이 해외에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조치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산업인력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한, 우수한 인력을 계속 있게 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AI 시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정부도 K-테크 페스라고 해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일하고 싶은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들 그리고 그와 맞는 처우를 해 주는 것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 AI 관련된 또 첨단산업 관련된 인재들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관계 부처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정호 위원 후보자님, 아까 질의하다가 끊겼는데요.

한전의 24년 말 기준 원전사업—특히 바라카 원전입니다—수익률이 0.3%, 722억 정도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정호 위원 그런데 올해 5월 7일 날 한수원이 한전에게 공기 지연에 따른 10억 불 상당의 추가 정산 요구를 했어요.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고 런던 국제상사중재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일 이 소송에 한전이 지게 된다면 1조 원이 훨씬 넘는 적자가 예상됩니다.

지금 한전 총부채가 얼마입니까? 203조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무리한 원전 수출 이런 것들이, 뭐 이것만은 아닌데요. 한전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고 결국 그게 국민들께 전가될 게 우려됩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신다면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익의 관점, 국민들 이익을 지키는 그런 입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에 원천기술, 원전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이 일단 타결이 되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정호 위원 핵심 쟁점이 뭐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국 기업 간의 상업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일종의 비밀유지협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비밀유지협약은 걸로 내용이 안 알려지게끔 막고 있는 거고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 APR1000이나 1400이 독자적인 기술, 독자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강행해 왔거든요. 반면에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이게 웨스팅하우스 CE System 80+의 기술을 복제한 단순 라이선스 기술이다, 그래서 이 특허 기술은 웨스팅하우스 소유이고 이것을 한수원이 침해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타결되었는데 문제는 이 타결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은 이 APR1400·1000이 독자 개발한 기술이 아니다,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을 복제, 카피한 기술이라고 하는 점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독자 기술이 아님을, 그래서 독자 수출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고요. 대신에 만일 어디든 사용하게 된다면 라이선스 피, 즉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한 것이지요. 혹시 이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익과 관련된 것이고요. 향후 우리 원전 산업의 전망, 진로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말로만 원전 진흥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수출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제 기술 종속 더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대략 지금 1억~1.5억 불 정도 로열티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외에도 상당한 역무를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구입해야 된다고 타협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독자 기술, 독자 수출을 못 하는 것과 함께 적어도 유럽 원전 시장에는 이제 독자 수출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수용한 점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이미 철수했지 않습니까. 이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정호 위원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체코 원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유럽에서 다 철수하기로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지금까지 독자 수출 가능하다고 강변해 왔고 강행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거짓말하고 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진흥 정책과 함께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했다는 치더라도 적어도 새 정부가 이것을 파악하고 거짓말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국민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취임을 하게 되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국익의 관점, 정말로 한국의 원전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산자부장관으로 취임하시면 꼼꼼하게 살펴서서 불공정 협약, 불공정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 추가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나중에 양당 간사 간에.....

○김정호 위원 없다면 한 1분만 더 주면.....

○위원장 이철규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지금 여당 위원이신데요 비공개로 질의하시거나 보고를 받고 당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 뭐에 대해서 말입니까?

○위원장 이철규 조금 전에 여러 가지로.....

○김정호 위원 아니, 살펴보라 했는데 뭘 그걸 가지고..... 추가질의 더 줄 거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철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김정호 위원님은 여당 위원님.....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웅 위원 오랜 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후보자 배우자분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멜딜리처드리’—들어 보셨습니까?—라는 이름의 업체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어려운데 멜딜리처드리 이 해당 명칭을 검색하면 불법 코인·주식 리딩방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해명을 요구했더니 산업부에서는 ‘멜딜리처드리라는 미국의 제약회사 이름입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잘못됐다. 확인해 보니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브라는 회사의 스톡옵션 매각 소득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댈덜리처드리는 뭐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브라는 회사의 스톡옵션 이야기는 뭐냐?’ 다시 경위서를 받아 보니까 배우자가 소득을 신고하면서 해당 기업이 외국법인이라 사업자등록번호를 누락했답니다, 없었던가. 그래서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사업자번호를 막 입력해 넣었답니다. 그랬더니 임의로 넣은 그 번호가 딱 바로 댈덜리처드리라는 회사로 나왔답니다.

정말 일국의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 요청에 이런 희한한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도 이번에 청문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마 말씀하신, 나중에 설명한 내용이 팩트이기는 합니다. 저도 받음도 어려워 가지고, 댈덜리처드리라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는 아무런, 근무한 적도 없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BMS라는 미국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해서 나온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건 한미 간의 관세 문제에 대해서 힘없는 우리 농축산 분야를 희생양으로 삼고 이 부분에 대한 수입량을 미국이 원하는 만큼 받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미 관세 부분을 낮추려고 하는 이런 접근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후보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소고기 수입 문제와 미국산 사과 수입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상웅 위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희생양으로 삼겠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가 심해서, 아까 충주의 이종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과 농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가 겹치면 날 정도인데 이 사과마저 미국산 사과가 시장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 농민들은 이제 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런 취약한 부분의 농축산물을 가지고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지렛대로 삼는다든가 어떤 수단으로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일이다. 산자부장관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농산물 이슈, 특히 소고기·사과 등이 얼마나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인지는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인 농림부나 그런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옵션이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농민들 이슈라든지 우리 국익 그리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최소한 사과는 좀 빼 주세요.

○**위원장 이철규**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 후보자님, 여러 우리 전략산업이 다 중요하겠습니까마는 또 배터리 산업

도 우리 미래산업의 경쟁력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업계 전체적으로 경쟁력에서도 중국에 좀 뒤처지고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최근 보도를 보니까 기아자동차에서—신규 모델이지요—EV5 모델에 중국산 배터리를 쓰겠다, CATL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하겠다 해서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이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나름의 전략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배터리 업계가 중국과의 이슈 그리고 그 안에서의 우리 제품하고 중국 제품과의 이슈,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더군다나 전기차가 최근에 좀 부진해지면서 일종의 전기차 캐즘(chasm) 비슷한 현상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미래에 우리의 어떤 전략적인 산업 분야이고 그 분야에 맞춰서 우리 정부나 기업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구요. 이 부분도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터리 업계가 자생을 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리고 국내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모든 분야의 배터리 산업의 전기차 분야도 중요하지만 또 한 축에서 보면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서는 ESS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국내 ESS 산업을 키우기 위한 나름의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계획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ESS 분야는 지금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분야인데 어쨌든 경제성 이슈라든지 시장의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ESS 관련된 일단 각 건물들에 있는 설치 규제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 그런 규제 이슈들 그리고 시장을 만들어 가는 이슈들 그리고 경제성을 갖기 위한 R&D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ESS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차원에서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kW 이상의 건축물은 계약전력 5% 이상의 ESS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산자부 자체의 규정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런 것부터 먼저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해 나갔을 텐데 공공기관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시장을 만들어 가는 시장 조성 기능이 필요한데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이런 분야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정부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서 시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보조금까지도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내에서는 21년에 ESS 연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REC 가중치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리고 ESS 특례할인제도도 26년에 일몰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이 더 축소될 것 같은 걱정이 되거든

요. 그래서 이런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시장 확대 차원에서 의료라든가 공연관람장이라든가 대형 건축물의 비상전원장치에 ESS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것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것도 통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디젤이 거의 99.6%를 차지하고 있고 ESS는 0.04%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쪽도 시장 개척 차원에서 오히려 설치할 경우에 지원 방법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공감합니다.

○송재봉 위원 그 분야도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건물 내에 ESS 설치 시 용량을 600kWh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이 규정이 적용되면 2개 이상 건물이 연결된 구조 이런 데는 아예 설치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서 피크 저감·배연 기능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이런 규제들이 ESS에 화재가 한번 나면서 이런 이슈가 생긴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방화벽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송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가락시영아파트 매입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아까 IBRD에 3년 근무하러 가면서 갔다가 오면 아파트가 돼 있을 테니까 입주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은 전혀 안 맞는 얘가지요. 우리나라 아파트 재건축하는 데 3년 만에 딱딱 그렇게 재건축됩니까? 최소한 10년 걸리고 15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년 IBRD에 갔다 오면 아파트 완공돼 있어서 입주하려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그러니까 당시는, 그게 아파트가 결국은 조합원 분쟁이 나면서 준공이 지연이 되는데……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최소한 IBRD에 가기 전에 이 아파트 구입할 당시에는 3년 동안은 입주할 생각을 안 했던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갔다가 몇 년도에 돌아왔습니까? 2008년도에 돌아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형수 위원 2008년도에 돌아오고 이 아파트에 입주자 이주가 시작된 시점이 2012년이네요. 그리고 2015년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착공이 됐어요. 그러면 2008년에 돌아와서 2012년까지 최소한 4~5년 정도는 입주할 수 있었음에도 입주 안 했어요. 그러면 결국 후보자는 이 가락시영아파트에 입주해서 살려는 의사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이게 재개발되면, 그렇게 재개발돼서 재건축이 돼서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때 들어가서 살려는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맞지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맞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다만 2008년부터 선이주가 시작이 되어 있는 상황 이었고 당시에 이미 거주할 수 있는, 이미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정도로 열악 해 있어서……

○박형수 위원 그렇더라도 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에는 3년 동안 IBRD에 갔다 왔고, 갔다 와서도 4~5년 정도는 입주할 안 했어요. 최소한 몇 년 동안 이 아파트에 실제 입주해서 살 의사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재건축이 되면 그때 살 생각 또는 그 차익을 원하는 투자 또는 투기 목적, 이런 목적으로 구입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실제로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5억 1000만 원에 사 가지고 15억에 팔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형수 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박형수 위원 잠깐만, 시간이 없어서 추가로 답변하고 싶으면 질문이 끝난 다음에 하 시지요, 관세협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상용 위원님도 관세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종배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관세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8월 1일까지 보름도 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다는 대책 이 자체가 농산물 추가로 개방하는 이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여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농산물 추가 개방 안 된다고 해도 지금 이 협상에서 지킬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정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얘기한 걸로 보면,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가 방어해야 하는 부분은 강하게 방어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7월 14일 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할 때는 농산물 개방은 어떠어떠해 가지고 좀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것은 큰 틀에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벌써 이 말 이것은 농산물 시장을 소고기든 사과든 뭐든 추가 개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지켜 내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도 지킬 수 있을까 말까요.

지난번 한미 FTA 할 때 농산물이 가장 큰 피해를 봤어요.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잖아요. 그리고 그때 한미 FTA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대기업에서 상생기금을 내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운,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돕자고 그랬어요. 그것 이행됐습니까? 1조 원 모금하기로 했는데 이천 몇백억밖에 모금이 안 됐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추가로 농산물을 개방해 가지고 또 농민들한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한다? 이것은 정부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 검역단계에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금 사과나 자두 이런 것은 1·2단계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에서 이것은 강력하게 보호를 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믿고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과수원도 확장하고 농기계도 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판로도 개척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청송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주 특히 또 안동, 사과 60% 이상이 경북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경북지역 경제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한 지방에 큰 타격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특히 사과 시장의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김종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AI 시대의 산업 대전환 5대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첫 번째 것만 얘기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머지 4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R&D 시스템 혁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 R&D 시스템의 문제가 뭔지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딱 저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가시적 성과를 내다 보니까 우리나라 R&D 성공률이 85%입니다. 다른 나라가 보면 이해를 못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시적 또는 우리가 관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 공직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R&D가 이루어지는데 R&D가 일종의 양자역학입니다. 고전물리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85%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 해법은 뭘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답안도 주신 것 같은데요. 현장이, 연구자들이 실패할 수 있는 R&D가 진짜 R&D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답이 정해진 R&D를 지금까지 해 왔고 그래서 85%인데……

○김종민 위원 그것을 무슨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어요. 시장과 민간의 힘을 믿고 R&D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 투자할 때 팁스(TIPS) 방식 도입해서 성과가 좋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종민 위원 산자부 R&D도 팁스 방식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자, 이게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장관님은 좋은 방안인데 엄두가 안 난다고 그랬어요. 장관 되시면 이것 엄두를 좀 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게 길이라고 저는 봐요. 핀란드도 이것 해서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 첨단산업 인재 확보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공감하실 거예요.

일단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연계 상위 10위 학과가 1990년도에는 물리학과, 컴퓨터공학과 그랬어요. 저것 보세요. 10위까지 다 의예과입니다. 20위까지 가 볼까요? 20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거기도 의예과……

○김종민 위원 한의대예요, 한의대. 19위까지 의예과고 20위가 한의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

그다음 봐 보세요.

과학 분야의 세계 최상위 대학 순위가 우리나라는 50위권 밖이니까 아예 볼 것도 없고 16년에 미국이 다수를 차지하고 중국은 베이징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언제부터 ‘제조 2025’를 하더니 작년에 중국이 8개예요, 10개 중에.

다음 PPT 봐 봐요.

그다음에 글로벌 ‘AI 100대 인재’. 중국이 57명, 한국은 1명, 발표 논문 수도 거의 얘기가 안 돼요, 이것.

그다음에요.

중국 테크노 CEO들 보세요. 옛날에 장쩌민, 후진타오 해 가지고 다 공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등소평 이후에 개혁·개방 실용주의 정책을 펴면서 지도자들이 테크노 CEO들이 많아졌어요. 대한민국은 거의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종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해외 인재 유출, 미국이 발급한 EB 1·2 비자 저게 한국이 제일 많아요. 한국이 10명이 나갑니다, 다른 나라 1명도 안 가는데. 그러면 미국으로 다 나가는 거야, 한국이 10배 이상 나가는 거지.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아까 무슨 K-테크 패스 가지고 어떻게 해 본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거 지금 성과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올해 1명 했어, 1명. 중국은 올해 몇 명 했는지 아세요? 중국은 1000명 했습니다. 뭔가 이거 갖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저런 PPT를 보여 드렸냐 하면 이 문제가 되게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대학교육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인재 확보까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 네 번째가, 시간이 없으니까……

에너지전환에서 저는 자꾸 에너지고속도로 해 가지고 송배전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 송배전으로 이 사고를 바꿔야 된다. 에너지고속도로도 단순한 송배전망이 아니라 운반 그다음에 저장, ESS 그다음에 양수발전, 수소, 기타 다양한 방식의 운반·저장, 그다음에 지산지소, 분산에너지 이런 전략을 총동원해서 에너지고속도로 구성을 해야지 송배전에 의존하는 에너지고속도로 안 된다. 이것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김종민 위원 마지막으로 새로운 경제영토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거는 통상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미국·중국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중국을 우리가 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아시아 10억 인구를 하나로 묶어 낼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

한류 때문에 또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신화나 무형자산 때문에 아시아 나라들이 한국하고 코워크(co-work) 하는 걸 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중국보다 한국이 환영받아요. 이게 몇 년 갈지 몰라요. 이 시기 안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아시아 시장을 우리 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가 패권으로 가면 안 됩니다. 비패권, 파트너십 전략으로 가야 돼요.

신남방정책을 새롭게 발전시킨다고 했으니까, 기존 남방정책은 원 오브 템(one of them)이었잖아요. 이제는 국가의 미래가 여기 달려 있다 이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미국·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런 각오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길게 들을 수는 없는데 장관 되시면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과 산자부의 앞으로 계획을 주시면 제가 또 추가로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간단하게 의견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섯 가지에 대한 위원님의 문제의식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분야이고요.

마지막에 글로벌 경제영토, 제가 그 분야는 아시아, 중앙아시아를 다니면서도 실감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에너지 관련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재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복합적인 이슈 이유이기도 하지만 참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한두 가지 이슈가 있는 이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깊이 있게 전문가들, 관계 부처랑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아시아 파트너십 관련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요 뭐 막히는 것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제가 1차 질문 때 못 했지요.

후보님께서 기업에 계셨기 때문에 전시라든지 기업의 전시 지역, 기업의 박람회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오세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의 CES라든지 스페인의 MWC라든지 중국의 캔톤페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추는 기업홍보, 어떤 도시 브랜드 가치도 올릴 수 있고 글로벌 육성, 수출 확대

가 많이 돼서……

저희가 지금 PT 자료 보면, 방문객이 13만여 명이고 참가국이 150개 정도, 그게 작년. 올 초였지요, CES. 역시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것도 이렇게 많은 내방객과 비즈니스 바이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업으로서 중요하다. 특히 왜 중요하냐, 요즘 온라인 유통으로 많이 간 상황에서 기업들이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통, 기업홍보, 해외 진출, 바이어 유치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K-뷰티, K-푸드·의료기기, 그렇지요? 그런 한국의 전략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판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외를 나가야지만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육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메가급 글로벌 전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저도 거의 매년 CES·MWC는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서 국내에서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최근에는 부산 BEXCO에서 에너지대전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래서 글로벌 박람회는 우리의 전략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수출 전략산업으로 글로벌 수준의 국제전시를 저는 도시별로 특징을 가지고, 지역에 이게 유치되면 연관 산업이 많습니다. 숙박도 하지요 관광산업도 있지요 또 거기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업종이 많이 또 유치가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글로벌 세일즈장으로 좀 삼아야 된다. 그래서 K-전시 육성을 장관이 되시면 좀 해 주셨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두 번째는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인데 우리가 이제 거스를 수가 없지요. 이런 산업 대전환 속에서 소멸되어 가는 직업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디지털화·친환경 이런 시대에 전환 산업의 그런 것들이, 소멸되어 가는 직업이 자동차정비업과 주유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차 같은 경우도 엔진·변속기 부품이 37%, 그렇지요? 지금 PT에 보듯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정부가 도와줘야 되냐? 그 부분은 정비업이 지금 3만 6000개 정도가 되는데 10%밖에 안 됩니다,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폐업의 기로에 있고 정비업계 종사자들은 뭘 어떤 걸 주장하느냐? 전기차 정비나 고전압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정비하고 고전압 안전기술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 주시고.

그러면 주유소는 어떠냐? 주유소가 지금 2023년에 1만 개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폐업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하탱크 철거도 있지 폐기 비용에 토양의 오염, 이게 수억 원이 들기 때문에 요즘 주유소를 그냥 놓고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유소 업계가 원하는 것은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 구축, 그렇지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충전하면 거기서 또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폐업 비용의 지원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전환을 막을 수 없으면 그런 산업 대전환에 사라지는, 소멸되어 가는 업종, 미래차 연관 소멸 산업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합니다. 어떠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소 이슈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합 자동차 이슈라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오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재생에너지 질문을 많이 하셨고 저는 원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및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가 우리 K-원전의 정말 쾌거였고 또 세계 원전의 메이저리그라고 할 수 있는 유럽시장의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 체코는 전통적으로 또 기계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도체나 AI나 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를 산업전환을 시키면서 전력 발전을 많이 늘려 나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당초에 세계 최초로 탈원전을 선언했던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스웨덴이나 벨기에 또 덴마크,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셀 수 없는 나라들이 이제는 다시 또 원전 확대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그래서 원전 시장, 특히 유럽에 진출하는 우리 K-원전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세계 원전 전시회 등 여러 활동을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유럽 시장에서의 K-원전 전망은 어떻습니까? 프랑스 원전이나 러시아 원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사실 제가 여기 후보자가 안 됐으면 지금 스웨덴에 있을 타이밍입니다. 스웨덴에 원전 때문에 출장이 원래 당초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박성민 위원** K-원전 경쟁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K-원전 경쟁력은 제가 보기에 원전 전 주기를 우리가 같이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처음 설계부터 설계, 제작, 시공, 운전, 폐기까지 전체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 프랑스 정도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떤 납기 기간이라든지 가격에서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정도 수준이라 저의 생각에는 지금 중국……

○**박성민 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또 다음에 듣기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 1호가 ‘AI 세계 3대 강국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의 AI 기술력이 사실은 25개국 중에 9위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9위 정도도 안 되는 입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그래서 미국과는 6배 이상, 중국과는 4배 이상 기술력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5년간 100조를 투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전력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AI 강국이 되려면 전력 생산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실제로 챗GPT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생성형 AI는 일반 검색보다 10배 이상, 영상이나 이런 걸로 하면 한 50배 이상 전력 소모량이 있다고 하는데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전기 생산이, 양질의 고품질 전기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다행히 환경부장관후보로 내정 지명되신 우리 위원회에 같이 있었던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사실은 원전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 생각을 달리하시다가 지금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 소식을 듣고 저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박성민 위원 반가웠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K-원전이 정말 막대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유럽 시장에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 핵심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전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원전은 조금 전에 했던 글로벌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고 특히 또 미국도…… 조금 전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사우디, UAE 즉 원전을 하겠다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 기업,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계속 수출이 잘 되고 원전 수출이 나가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지금 주력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수출도 늘려서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성민 위원 지금 11차 전기본에 의하면 원전 2기 또 SMR 하기로 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부지 선정이라든지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고. 제 지역구가 울산인데 울산이 월성원전, 고리원전 2개 원전 지구로 싸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혜택은 거의 없는

데 원전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원망해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몇 가지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몇 가지 묻고 싶어서 위원장이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원전 기술의, 한국형 원전 기술의 독립 선언은 공교롭게도 2007년도 6월 3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최초로 우리 한국이 원전 기술의 독자적 기술을 개발해서 원전 독립을 했다 해서 원전 독립 선언을 했습니다. 하고, 2019년도에 신고리 3·4호기 준공식 때 문재인 정부 때 두 번째 원전 기술의 독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기를 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적으로 발언이 나가게 되면 우리 산업 정책·에너지정책이 정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야 위원님 모두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명확하게 그런 것은 여야, 정파에 관계없이 정정당당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보니까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장관후보자로서, 특히 우리가 AI 등 첨단 산업에는 정말로 필요한 게 에너지입니다. 그중에서 전기에너지, 고품질 전기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믹스에 있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성장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소신껏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걱정이 덜해집니다.

그런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정부와 여야 간에 국회에서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것이 새 정부의 일부 어떤…… 정부에도 후보자처럼 이렇게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것보다 다른 쪽에다 가치를 부여해서 이것을 다시 또 변경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당하게 목소리 내 주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중에서 아까 기후에너지부 설립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청문회 자리가 되다 보니까 현재 여기 또 다른 목소리를 정부 내에 계신 분들이 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해 가지고 돌려서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우리 해수부가 해양플랜트를 주관하겠다, 관장하겠다 이게 가당치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정책에 산업부 산업정책부가 결부되는 거니까 기후·환경과 관련된 것은 그 기준에 맞춰 가면 됩니다, 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이것 어느 부처가 관장할 것이냐 할 때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타 부처의 정치인 장관들 그분들이 힘으로 밀어붙인다 해 가지고 굴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산업 미래를 위해서 소신껏 해 주신다면 아마 나중에 역사에 남는 관료로, 장관으로 남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주신 충고와 조언들 가슴 깊이 새겨서 우리 산업과 통상·에너지가 다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리고 잠시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낙월해상풍력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태국의 비그림이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상 수주를, 사업권을 받아서…… 이게 뒤에는 중국에 말이지요 중국의 국영 에너지공사가 이것을 사실상 공급하고 말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산업부에서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나 아까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서면질의가 갔을 텐데 낙월풍력에……

해상풍력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도저히 국내 기술이 없고 다른 방식으로 안 될 때는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산이라도 가지고 와야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내 산업을 일으키고 하려면 처음 시작할 때 단순히 가격경쟁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해상풍력이 중국의 기술과 중국 자본에 예속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걸 중국 제품을 가져와서 택만 갈아 가지고, 또 단순 조립만 해 가지고 이걸 한국산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에너지안보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세협상 아닙니까? 지난 탄핵 정국에서 사실상 지난 정부의 각료들,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분야에 계신 분들이 국회의 제1당이던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요구, 저도 일부분 거기 동의했습니다마는 조금하게 협상을 하지 말고 새 정부에 넘겨라라는 이런 요구에 따라서 협상이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최고로 중요한 현안이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인데 조금해서도 안 되겠지만 느려서도 안 되고요. 정말로 지혜롭고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제 논리만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다음에 정치 논리가 개입해서도 국익에 치명적 손상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쌀의 관세화를, 농민들의 저항 때문에 94년도에 관세화를 거부하면서 의무수입을 약속해서 지금 이게 우리 농정에 제일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교훈 삼아 가지고 지켜야 할 것은 농산물 중에서 정말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작은 걸 지키기 위해서 큰 걸 내놓는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다.

특히 예를 들어서 쇠고기 30개월 월령 가지고 걱정들을 하는데 그걸 국내에서 소비자가 30개월 넘은 미국산 쇠고기를 하면 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비 수준, 소비자 주권으로 얼마든지 막아 낼 수 있는데 그걸 괜히 정부가 막는다 해서 우리가 보복을 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저는 아마 받아들인다

면 미국이 안 할 것 같은데요. 한번 잘 대화를 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그리고 에너지고속도로, 강원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없는 겁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국익에 관련된 거니까요. 에너지고속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이게 해상풍력만 그런 게 아니고요. 2011년도에 우리 블랙아웃이 한 번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이후에 너무 과도한 예비송전로……

우리가 자동차가 다니는 교량이 있는데 이 교량이 끊어질 걸 대비해 가지고 예비 교량을 만드는데 교량 하나에 하나씩 예비 교량을 만드는 것이 옳으나, 가까이 있는 교량에 예비 교량 하나를 두고 두세 개가 끊어졌을 때 그 교량을 주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나 하는 논리와 같은 것 같은데 감사원이 50%로, 예비율을 100%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하라 했다는 지적사항 하나 때문에 산업부가 지금 15년 동안 예비송전선로를 그냥 이렇게 놀려 가면서 과잉투자를 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이걸 근본적으로……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송전설비들을 놀리면서 다시 송전선로 부족하다고, 지금 이렇게 비싼 전기가 쓰이게 되고 우리 지역의 값싼 전기, 고품질의 전기가 송전이 안 돼서 못 쓰는 이런 답답한 현실 이것 좀 극복해 내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무슨 말씀인지 뒤에 아시겠습니까, 이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됐습니다. 대충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막바지로 아까 에너지전환에 피해 보는 분들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난 6월 30일 날 대한민국의 공기업인 석탄공사가 완전히 폐광을 하게 됐습니다. 폐광을 하게 됐는데 산업부에서 이 폐광의 후속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우선 이 부채, 2조 6000억 되는 부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다음 두 번째는 그곳의 대체 산업을 산업부가 2022년 말부터 준비해서 기재부에 보내 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화순과 강원도 태백, 도계 세 군데인데 이 대체 산업, 28일 날이 예비타당성조사 점검 회의가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그런 것도 해당 부서에서 잘 챙겨서 이것이 사회에 혼란으로, 농성이라든가 이런 시위로 전가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잠시 두 양당 간사분들이 협의해 가지고 3차 추가질의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시지요.

○박성민 위원 됐습니다. 우리는 서일준 위원 한 분.

○위원장 이철규 한 분입니까?

○박성민 위원 예.

○**김원이 위원** 저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렇습니까?

○**박성민 위원** 바로 하시지요.

○**위원장 이철규** 바로요?

○**박성민 위원** 예.

○**위원장 이철규** 정부 관계자들, 잠시 휴식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원이 위원** 이제 한 분 남았으니까……

○**위원장 이철규** 아니, 그 외에 또 뭐…… 왜 끝난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그러면 추가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분입니다.

신청하신 한 분,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신청하실 분 많이 있었는데 제가 무조건 자제를 시켰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여당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일준 위원** 대신에 한 5분 주세요.

○**위원장 이철규** 양당 간사들께서 개별 위원님들의 질의 발언권을 제한한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공식적으로 박성민 간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서일준 위원** 후보자님, 지난번에 화물창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관계 기관 간에 협상 중에, 협의 중에 있는데 장관 되시면 빨리 조율해서 국산 화물창이 잘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그다음에 LNG 화물창 다음에 액화수소 화물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 SMR 전문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지금 선박 관련해서 조선사들도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용융염 원자로 그다음에 부유식 원전 이런 것을 조선소에서 각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산업부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조선 경기는 활황이라는데 지역경제는 완전히 불황입니다. 이 주원인이 뭐냐 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냐? 내국인 근로자들이 조선소에 일하러 안 옵니다. 왜 안 오는지 제가 현장에서 협력 업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주 52시간 이것 조금 플렉시블(flexible)하게 해 달라……

지금 조선소에 가보면요 요즘 같은 장마철, 폭염이 오면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업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어서 일이 많을 때는 많고 없을 때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일하기 좋을 때도 52시간,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이런 장마철이나 폭염 때는 일을 52시간이 아니라 아예 1시간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주 한 60시간, 70시간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을

때에도 52시간, 일할 수 없을 때는 아예 제로 이런 게 있으니까 한 달에 월급을 받아 봐야, 많아 봐야 삼사백만 원 되니까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외국인 인력이 지금 와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삼성전자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좀 플렉시블하게 하겠다 하다가 어떤 연유로 다시 돌아갔는데 정말 필요한 데는 저는 주 52시간 이것 플렉시블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저도 현장에서 그런 걸 굉장히 절감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제가 장관이 되면 그런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처하고 열띠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꼭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원이 위원** 장관후보님,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있으니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해상풍력 전용부두 그리고 전용선박 그리고 배후단지 조성 관련한 산업부의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가 지금 논의가 크잖아요. 지금 정도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관련한 산자부의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 RE100 전용 국가산단 계획을 대통령실 정책실장님이 발표하셨는데 산업부하고 충분히 논의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논의해서 세워진 계획을 우리 산자부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공유를,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료 요청드리고.

또 하나는 이견 의사진행 겸인데 다음 주 정도에는, 우리 법안들이 많이 밀려 있잖아요.

○**위원장 이철규** 예, 그건 나중에……

○**김원이 위원**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산자법안소위하고 중기법안소위가 열렸으면 하는 건의 말씀 드립니다.

○**박성민 위원** 여당 간사님이 너무 멋대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김원이 위원** 건의드리잖아요, 건의.

○**위원장 이철규** 그런 발언은 비공개로 대화하십시오.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후보자에게 최종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최종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정관**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갑작스러운 많은 비로 전국에 피해가 잇따르고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께서서는 회

의 참석도 못 하셨는데 피해 지역 주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최소화과 빠른 복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충고와 격려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제 생활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었고 공직자로서 자세와 처신을 가다듬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미처 잘 알지 못했거나 소홀히 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시어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께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의 최종발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정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후보자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 및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도에 수고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별도 협의를 진행한 결과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구자근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박상웅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이연주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한 김정관 후보자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5분 산회)

○출석 위원(28인)

곽상언 구자근 권향엽 김동아 김성원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한규 나경원
박상웅 박성민 박지혜 박형수 서왕진 서일준 송재봉 오세희 이언주 이재관
이종배 이철규 장철민 전재수 정동만 정진욱 허성무 허종식

○청가 위원(2인)

강승규 김성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성소미

○출석 공직후보자

김정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이용필
감사관직무대리 이원규
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원전산업정책국장 안세진

【보고사항】

○의안 회부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7. 7.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7.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7)
이상 2건 7월 8일 회부됨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7. 8.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2)
7월 9일 회부됨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1.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6)
7월 14일 회부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5.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7)
7월 16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7. 4.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5)
7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7.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8)

7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사이버안보법안

(2025. 7. 11.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0)

7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47	35	20	4	241
중소벤처기업부	20	12	28	3	73
특허청	4	12	12	3	31